

## 기록관리 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담론 분석\* 출처주의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Discourses o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n Archival Organization

설문원(Seol, Moon-won)\*\*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의 방법
  - 3) 선행연구
2. 출처주의 담론 분석을 위한 모형
  - 1) 담론 영역의 구분
  - 2) 논변 모형의 설계
3. 출처주의 담론의 논변 분석
  - 1) 정립기
  - 2) 확산기
  - 3) 전환기
  - 4) 확장 혹은 해체기
4. 결론
  - 1) 종합비교
  - 2) 맺음말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5737).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투고일 : 2017년 3월 31일 ■ 최종심사일 : 2017년 4월 5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4월 21일

## 〈초록〉

이 연구는 보존기록관리 원칙인 출처주의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실무적 주장의 근거와 배경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출처주의 담론 영역을 구분하였다.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채택되어온 방법론이 네덜란드 매뉴얼을 통해 명문화된 1898년 이후 출처주의 담론의 흐름을 대체로 정립, 확산, 전환, 확장·해체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핵심 담론을 살펴보았다. 둘째, 출처주의 담론 분석에 맞도록 논변 모형을 설계하였다. 톨민의 논변 모형과 던의 정책논변 모형을 참고로 하되 출처주의 담론 분석에 적합한 요소들을 결합하여 모형을 재설계하였다. 셋째, 각 영역의 핵심 담론별로 출처주의에 관한 영어권 저자들의 논문과 저서를 일차적으로 조사하여 선별하고 각 논지에 나타나는 인용논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담론텍스트를 뽑아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각 영역별로 논변 모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출처주의, 원질서 존중의 원칙, 품 존중의 원칙, 보존기록 정리, 보존기록 조직론, 기록관리 원칙, 담론 분석, 논변 모형**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logically investigate the changing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by using an argument model for discourse analysis. First, it divides the history of discourses on the principle from the Dutch Manual publication of 1989 up to the present into four areas, which includes establishing, diffusing, transforming, and expanding or deconstructing, and articulates the core discourses of each. Second, it designs the argument model for analyzing the discourses on the principle by applying Toulmin's argument model and Dunn's policy argument model. Third, it selects the articles and books that cover the core discourses of the principle, and analyzes their

contents in consideration of the argument model. Fourth and finally, it presents four argument models corresponding to each area of the discourses.

**Keywords : Principle of Provenance, Principle of Original Order, Respect of Fonds, archival arrangement, archival organization theory, discourse analysis, argument model**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출처주의(Principle of Provenance)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출처주의는 기록관리의 대표적 원칙으로, 19세기 말 이른바 『네덜란드 매뉴얼』을 통해 정립된 후 그 해석과 적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아직도 이에 대한 담론은 진행형이다. 출처주의는 기록의 조직을 결정하는 실무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기록관리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원칙을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논쟁이 이루어져왔다. 행정관료 조직의 변화, 기술의 발전, 시민 의식의 고양 등은 출처 및 원질서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해 왔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출처주의는 정리(arrangement) 원칙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Bunn 2014).

콘텐츠 전시와 이벤트와 같은 외형적 성과를 강조하는 우리의 행정 환경에서도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여 년 간 정리·기술 원칙을 적용한 검색도구를 개발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결과는 미흡하다. 현재 (준)현용기록은 정부 기능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보존기록 조직에 대해서는 아직 확고한 정책도 실무도 없는 실정이다. 물론 계층적 정리를 공공표준(영구기록물기술규

칙 2011)과 지침(대통령기록물 정리 기술 규칙 2011)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표준들은 모두 출처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구현된 검색도구를 보면 원칙 측면에서나 활용성 측면에서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국가기록원 2011, 국가기록원 2007 참조). 무엇이 문제인가? 그동안 학계는 출처주의 및 집합적 기술과 같은 정리기술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기록물관리기관들의 '후진성'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오랜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면, 이제는 원칙의 해석과 적용방식이 지금 우리의 환경에 맞는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특히 디지털기록이 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대량 이관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출처 기반의 사후적이고 귀납적인 정리체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실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구 기록학계의 정리원칙에 대한 해석체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기존의 출처주의가 보존기록 정리원칙으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면 그 근거와 대안은 무엇인지 서구 학계의 담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기록학계는 현실 대응적인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구에 비해 기록관리 제도화가 뒤늦게 이루어진 환경에서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기록관리 현장은 디지털환경의 급진적 변화에 직면하여 어떤 원칙을 고수하고 어떤 원칙을 버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나침반 없이 파고를 헤쳐 가야하는 막막한 현실에 서 있다. 기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의 실무 개선을 위한 연구만으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뒷받침할 이론적 탐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구에서 형성·발전해 온 이 원칙이 과연 지금 우리 현실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원칙의 성립과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처주의의 실무적 효과가 큰 기록조직론 영역을 중심으로 이 원칙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출처주의에 대한 피상적 이해를 넘어 시대별 환경과 인식 변화에 따른 변화과정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논변 모형(argument model)을 적용한 담론 분석을 시도하였다. 담론 분석 방법을 채택한 것은 기록관리 환경, 당시 기록의 특징 등 여러 요인들이 출처주의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다각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논변 모형을 담론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출처주의 담론 영역을 구분하였다. 출처주의 담론의 흐름을 네 개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주요 담론을 살펴보았다. 둘째, 툴민(Stephen Toulmin)의 논변 모형을 토대로 출처주의 담론 분석에 맞도록 모형을 재설계하였다. 셋째, 영역별 주요 담론을 중심으로 영어권 저자들의 논저를 일차적으로 선별하고 각 논저에 나타나는 인용논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담론텍스트를 뽑아 그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각 영역별로 논변 모형을 완성하였다.

논변 모형의 한계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유민봉 1994, 1189). 이 연구에서는 기록학이론 및 조직론의 대표적 연구자들의 대표적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담론텍스트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이미 많이 알려진 이론과 주장을 논변의 내용으로 수용하여 편향성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이 새로운 이론이나 원칙의 ‘발견’에 있지 않고, 이론이나 원칙이 형성된 근거와 논거를 재구성해보는 것, 즉 “이론형성의 과정을 발견”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 3) 선행연구

출처주의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해 왔다. 가령 풍 존중의

원칙과 동일한 개념을 보는 경우도 있고, 풍 존중의 원칙을 출처주의보다 상위의 원칙을 보는 경우, 반대로 출처주의를 상위의 원칙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Cook 1993, 설문원 2003).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출처주의를 상위 원칙으로 보았다. 풍 존중의 원칙은 출처주의의 외적 측면으로서 출처가 다른 기록을 섞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생산자나 수집자가 만든 질서를 정리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출처주의의 내적 측면으로 보았다. 원칙의 주요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왔으나 그 차이점은 3장에서 살펴보았다.

출처주의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 중 이 연구를 설계하는 데에 특히 참고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출처주의가 엄격한 이론 탐구의 결과라기보다는 경험의 산물이며, 각국의 역사에 따라 원칙이 내포하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많은 연구들이다(Cook 1993, Pohjola 1994, 2009). 19세기 말 이후 기록평가론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당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자 하였던 라이드너(Ridener 2011)도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기록학 이론을 남긴 주요 저자들의 텍스트를 분석하였는데 ‘네덜란드 간척지(polders)’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네덜란드 매뉴얼』의 원칙들이 당시 네덜란드의 기록관리 환경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듯이 기록학 이론은 그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조건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매뉴얼의 원칙들도 일반 원칙이라기보다는 방법론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다(Ridener 2011, 144-145). 이러한 관점 및 서술체계는 이 연구의 방법론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다만 라이드너는 역사문화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출처주의의 해석과 적용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기록조직 이론과 실무의 관점에서 확인하고, 주장하는 바가 어떤 상황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글라스(Douglas 2010)는 출처주의가 아키비스트의 기록학적 사고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해왔으며, 출처의 개념도 기록의 정리방법, 물리적·지

적 구성체, 사회역사적 맥락 등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더글러스의 논의는 영역별 담론 분석에 포함하였다.

출처주의에 관한 국내 연구는 방효순(2002)에서 시작된다. 출처주의 적용을 고민한 연구도 이어졌다. “기록이 조직이나 개인의 활동의 증거로서 제시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록관리의 원칙도 기록이 생산되고 활용되던 시점의 질서를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해야 한다”(설문원 2003)는 관점을 가지고 원질서 추적과 복원을 모색한 연구(박성진 2002, 배성준 2004), 남아있는 기록을 토대로 기능분류 원칙에 따라 분류체계를 재구성한 연구(설문원 2003, 이승일 2006)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전자기록관리의 개념과 원칙을 검토한 이승억(2002)의 연구가 있지만 그 밖의 연구는 대체로 기록유기체론에 근거한 출처주의 담론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환경에서 출처주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연속적인 관리통제가 가능한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라 분류된 준현용기록을 이관 받아 보존기록으로 어떻게 재조직해야 할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출처주의와 조직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2. 출처주의 담론 분석을 위한 모형

### 1) 담론 영역의 구분

기록관리 환경변화와 기록학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출처주의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변화를 거쳐 왔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출처주의의 정립, 발전, 재평가와 전환, 확대 혹은 해체라는 네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주요 담론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영역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나는 측면도 있지만 각 영역별 담론들이 시간적 흐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전환영역과 확대·해체영역은 시기적으로 겹쳐진다.

- 정립기: 네덜란드의 물러 등(Samuel Muller, Johan Feith, Robert Fruin)은 1898년 『네덜란드 매뉴얼』(영문 원제: Manual for the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Archives)을 출간하게 되는데 이는 오랫동안 유럽에서 축적된 기록관리 실무 경험과 규칙들을 종합·정리한 것이다. 정립영역에서는 이 매뉴얼을 중심으로 출처주의 정립과 관련된 논변구조를 분석한다.

- 확산기: 출처주의는 1920년대에 힐러리 젠킨슨(Jenkinson, 1882-1961)을 통해 영국에 전파되고, 미국에서는 1940년대에 확산되는데 테오도르 R. 쉘렌버그(Theodore R. Schellenberg, 1903-1970)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대 기록학의 대표적 이론가인 이들은 해석과 적용상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출처주의를 지지하였고(Stapleton 1983-1984, 75), 확산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젠킨슨과 쉘렌버그(Schellenberg)를 중심으로 출처주의 담론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조직론의 측면에서 볼 때 젠킨슨의 출처주의는 네덜란드 매뉴얼과 거의 같다는 것을 본 연구 진행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젠킨슨은 정립영역에서 네덜란드 매뉴얼과 함께 다루고, 확산영역에서는 쉘렌버그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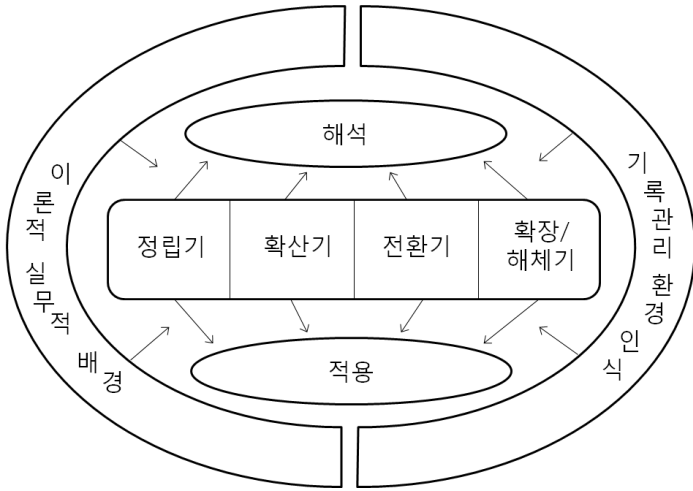
- 전환기: 출처주의 논쟁이 본격화되는 1960년대-90년대에 많은 비판적 담론들이 생산된다. 또한 출처주의 해석과 적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시기이다. 호주의 피터 스콧(Peter Scott)의 시리즈 시스템, 베어만과 라이틀(Bearman and Lytle)의 기능 출처(functional provenance)와 ‘출처의 재발견’ 등이 대표적 담론이다.

- 확장 혹은 해체기: 출처 개념의 확대와 해체 주장들은 90년대 이후에 두드러진다. 확산과 해체 영역에서는 디지털환경을 맞이하여 전환기의 출처주의 담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포스트모더니즘 학자들의 담론을 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환경에서 출처주의와 정리기술에 대한 문제 제기, 사회적 출처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이 연구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기록관리환경, 이론적 토대, 당시의 실무조건 등은 시기별 연구자 및 아키비스트들이 출처주의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출처주의 해석과 적용의 변화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은 논변 모형을 통해 보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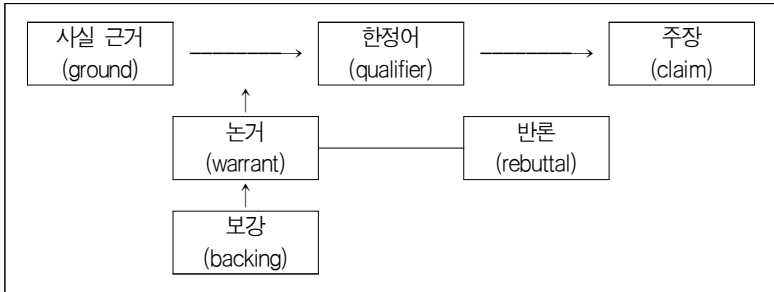
〈그림 1〉 출처주의 담론 분석의 구성도



## 2) 논변 모형의 설계

출처주의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는 틀로 이 연구에서는 톨민의 논변 모형과 던(Dunn)의 정책논변 모형을 활용하였다. 톨민의 논변 모형은 “어떤 주장이나 논거를 단계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의도와 전개방식을 규명하는 데에 효과적”이다(설진아 2009, 376). 논변이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입증 근거가 있는 주장을 말한다. 톨민의 모형은 사실근거, 주장, 논거, 한정사, 반론으로 구성된다. 이중 사실근거, 주장, 논거는 기본 요소이고 나머지는 보조적 요소이다(〈그림 2〉참조).

〈그림 2〉 툴민의 논변 모형



사실근거는 논변을 떠받드는 사실적 기반이다. 툴민은 어떤 주장이든지 사실이라는 지지대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박성희 2014, 149). 주장에는 사실과 의견, 주관성이 포함된 가치판단, 정책주장 등 3가지 유형이 있다(설진아 2009). 논거는 주장과 사실근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보강은 논거를 뒷받침하는 요소이다. 한정어는 주장을 어떤 경우나 상황으로 제한하는 데에 이용되며, ‘확률치’라고도 번역되는데, 주장이 가능할 수 있는 정도를 표시하기 위한 요소이며 ‘아마도’, ‘분명히’ ‘확실히’ 등과 같이 표현된다(박성희 2014, 150). 반론은 자신의 논거를 주장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제기할 이의내용을 먼저 진술한 후에 이에 대해 논박하거나 반증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논거가 어떤 경우에는 유효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논리구성을 탄탄하게하기 위한 장치이다(박성희 2014, 150).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도 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형은 논변의 각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논변의 의미와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이러한 논변 모형은 정량적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언론학이나 정책학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정책학 분야에서 Dunn은 툴민의 모형을 정책논변 모형으로 재설계하여 정책도입의 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데에 적용하고 있다(김대성, 김연아 2007, 48). 정책논변 모형

역시 6개의 요소로 구성되지만 각 요소의 의미를 정책주장에 맞게 조정하였다. 근거는 ‘정책관련정보’로 치환하여 “정책주장을 유발시킨 정책문제에 관한 사실의 진술”로 규정하였다(김대성, 김연아 2007, 48). 권명화(2006)는 호주제 폐지 및 존치 주장 분석을 위하여 정책논변 모형을 활용하되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논변의 핵심가치별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사용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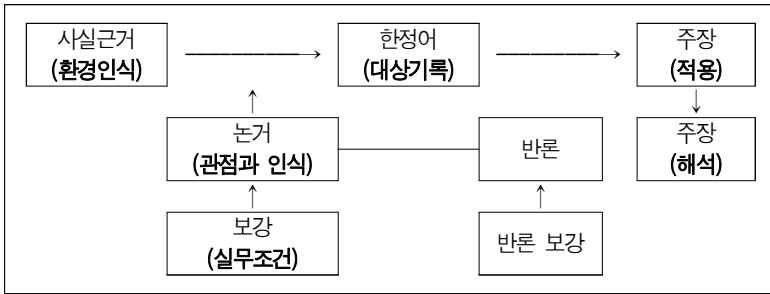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출처주의 담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기록관리환경의 변화, 당시 기록관리의 이론적 토대, 실무조건(기술변화를 포함) 등으로 보았으며, 특히 당시 관리대상 기록의 유형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라이드너(Ridener 2011, 8)는 기록평가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기록학의 패러다임, 기술 환경, 역사학의 흐름 및 사료학(historiography)과의 관계를 들었으나, 기록조직론의 측면에서 보면 환경변화와 기록학이론, 기술 환경(실무 조건과 유사)은 마찬가지로지만 주요 관리대상 기록을 ‘한정어’로 제한할 경우 논변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톨민의 모형을 적용하되, 각각의 요소를 다음과 같은 의미로 치환하였다. 이러한 요소 정의를 토대로 <그림 3>과 같이 논변 모형을 재설계하였다.

- 사실근거: 기록관리 환경으로 설정하였다. 출처주의 관련 논저의 저자들이 당시 기록관리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출처주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주장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 주장: 출처주의의 해석과 실무 적용이 어떻게 유지 혹은 변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이 될 것이다. 출처주의 해석(주요 개념과 정의)과 실무 적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 논거: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따라 출처주의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을 이어주는 논리를 이론 차원에서 정리할 것이다.
- 보강: 논거를 지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인식론을 뒷받침하는 실무 조건 차원의 이유를 기술할 것이다.
- 반론: 논거 및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정리하고 해당 담론 지지자들의 주

장을 통해 논거를 보강한다.

- 한정어: 본 모형에서는 담론을 개선하는 학자들이 염두에 두었던 기록의 유형을 한정적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각 담론에서의 주장이 모든 유형의 기록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출처주의의 내용은 당시 주로 관리해야했던 기록이 어떤 유형의 기록이었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Douglas 2010).

〈그림 3〉 출처주의 담론 분석을 위한 논변 모형 설계



이러한 방법은 각각의 상관관계를 엄밀하게 밝히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특정 해석체계가 어떠한 상황인식과 이론을 근거로 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 3. 출처주의 담론의 논변 분석

#### 1) 정립기

##### (1) 기록관리 환경과 출처주의의 성립

1794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중앙집중식 국가기록보존소가 설립되면서 보

존소의 직원들은 많은 조직으로부터 수집한 문서들을 정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은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1839년부터 1841년 사이에 ‘풍 존중’의 실무를 채택하게 된다. 이는 같은 기관에서 나온 모든 문서들을 함께 보관한다는 의미였으며 풍 내 질서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따라서 풍 안에서는 주제별 분류가 채택되는 경우도 많았다(Eastwood 2010).

이후 풍 내의 질서에도 생산기관이 만든 원래의 파일구조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안되었다. 1881년 7월에 프로이센의 프리비(Privy)주 기록보존소에서 기록정리를 위한 규정을 발행했는데, 레만(Max Lehmann)이 초안을 잡은 이 규정은 두 개의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하나의 행정조직의 기록을 다른 조직의 기록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한 출처의 원칙(Provenienzprinzip)과 기록은 그것을 생산한 행정조직이 가지고 있던 질서와 원래의 표기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록원칙(Registraturprinzip)이다(Posner 1940, 31). 등록원칙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관되기 전에 생산기관별로 기록을 등록해서 관리하던 독일의 제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유럽 여러 나라에서 축적된 기록관리 실무 경험과 관행이 1898년 네덜란드 매뉴얼로 집대성되면서 출처주의가 기록관리의 핵심 원칙으로 확립된다. 이 매뉴얼에 기술된 첫 번째 규칙은 “기록컬렉션(archival collection)<sup>1)</sup>은 어떤 행정기관이나 그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그림, 인쇄물 전체”라는 개념 정의다. 규칙 8과 16에서는 고전적 기록관리원칙의 양대 기둥을 기술하고 있다. 즉 기록컬렉션은 “반드시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고, 절대로 다른 생산자의 기록과 섞어서는 안 되며, 연대, 지리, 주제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이러한 정리체계는 “행정기관의 조직에 상응하는 기록컬렉션의 원래 구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출처와 원질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매뉴얼에서는 원질서 존중을 중시하여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법칙으로, 다른 모든 법칙은 이

---

1) archival collection은 프랑스어 fonds d'archives(아카이브 풍)에 대한 네덜란드 대역어 archief를 영역한 것이다.

것에서 출발” 한다고 보았다(Muller, Feith, and Fruin, 2003, 52).

에른스트 포스너<sup>2)</sup>(Posner 1950)는 네덜란드 매뉴얼이 프랑스, 프로이센, 이탈리아 등에서 100여 년 동안 개발되어온 기록관리 이론을 최종적으로 재가(final sanction)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매뉴얼은 이후 독어(1905), 이탈리아어(1908), 불어(1910)로 번역되었으며, 이후 영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됨으로써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한편 1910년 브뤼셀에서 있었던 최초의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대회에서 네덜란드 매뉴얼의 원칙을 공인하였다. 쉘렌버그와 젠킨슨의 기념비적 저서들은 모두 이 매뉴얼을 기초로 삼고 있으며, 쉘렌버그는 이를 “현대 아키비스트의 바이블”이라고 불렀다. 직접적으로든, 젠킨슨과 쉘렌버그를 통해서든, 네덜란드 매뉴얼은 기록관리 이론과 실무에 널리 영향을 끼쳤다(Cook 1997).

네덜란드 매뉴얼은 1940년에서야 영어로 번역·발간되었지만 1922년 출판된 젠킨슨의 논문(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problems of war archives and archive making)을 통해 그 내용이 영국에 전해진다(Douglas 2010). 젠킨슨의 출처주의에 대한 해석은 네덜란드 매뉴얼의 저자들과 유사하였다. 그러한 입장은 세계대전 발발 이전 영국의 공공조직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데, 당시는 조직이나 행정업무가 안정적이었고 따라서 기록을 그에 상응하는 고정된 질서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 (2) 관리대상 기록의 특징

네덜란드 매뉴얼은 저자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저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경험은 심도 있는 문서형식학적(diplomatic) 분석이 요구되는 한정된 양의 중세 문서, 또는 안정된 행정 아래에서 잘 짜인 부서 등록소에서 발견되는 기록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이 “기록의 원래 조

---

2) Ernst Posner(1892-1980)는 Prussia의 국립아키비스트였고, 1940년부터 21년간 워싱턴의 American University에서 역사와 기록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직상태”가 “기록을 생성한 행정 기관의 조직구조”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가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정부기록, 공공기록, 조직기록을 대상으로 하며, 이것들의 원질서와 분류체계를 보존할 수 있게 기록보존소로 질서정연하게 이관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Cook 1997). 이 매뉴얼에서는 기록 컬렉션(‘archieff’)이 인위적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문서가 자연적으로 모여 형성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에 민간기록과 개인기록은 대부분 도서관에서 관리하였고 이것들도 기록컬렉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Eastwood 2010). 주제, 장소, 시기 등을 중심으로 수집된 인위적 기록집합체 역시 기록관리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젠킨슨의 경험도 이들과 유사했다. 그는 1906년 런던에 소재한 국가기록원(Public Record Office)에 근무하였는데 여기서 그의 업무는 중세 기록과 초창기 정부 기록을 다루는 것이었다. 더 이상 기록이 추가되지 않는 ‘종결된 시리즈’에 속해 있고, 그 생산자들은 오래전에 사망해서 정적인 상태에 있으며, 과거로부터 상속받은 기록이라는 ‘지위’를 갖추고 있는 기록들이었다. 이러한 그의 경험은 그가 기록의 법적, 증거적 속성, 기록의 안정성과 본질적 완결성을 강조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Cook 1997).

### (3) 주장 : 풍, 출처, 원질서의 개념

풍과 원질서 존중을 담은 출처주의 선언은 정립기의 핵심 주장이다. 여기에서의 풍, 원질서, 출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앞에서 밝혔듯이 이 매뉴얼의 제1규칙에서는 기록컬렉션, 즉 풍을 “어떤 행정기관이나 그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그림, 인쇄물 전체”으로 정의한다. 19세기 말 프로이센에서 발표한 정의도 이와 유사하다. 젠킨슨은 프랑스의 ‘아카이브 풍’에 대한 해석으로 ‘아카이브 그룹’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의 아카이브 그룹 개념은 보다 포괄적이어서, “행정부에서

생성된 기록 전체를 포함하며 그 자체로 완전하며,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고, 외부의 권위 있는 자원을 거론하지 않아도 업무의 모든 측면을 반영하는 일종의 유기적 종합체(organic whole)였다(Eastwood 2010). ICA는 풍을 “어떤 개인이나 가족, 조직이 생산하거나 축적 이용한 기록 전체”로 정의하여 생산주체를 확대하였는데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2000, 14), 이 시기 풍은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기록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이 생각한 원질서는 어떤 것이었을까. 네덜란드 매뉴얼 규칙 16에 의하면 “기록컬렉션의 원래 정리체계는 그것을 생산한 행정기관의 과거 조직 및 기능 체계를 자연스럽게 일치”하며, “조직의 구조, 내부부서, 조직이 그 목적을 이루었던 과정을 반영한다”고 가정하였다(Muller, Feith and Fruin 2003, 54-56). 또한 1930년대에 이탈리아의 조르지오 첸체티(Giorgio Cencetti)는 원질서가 “행정조직의 구조와 역사, 어떤 면에서는 기록 생산자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보존기록은 생산자를 반영하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산자 그 자체다.”(Savoja와 Vitali 2007, 123)라고 주장하였다. 네덜란드 매뉴얼의 저자들이나 첸체티는 원질서를 기록을 생산한 조직 구조의 반영물로 본 것이다.

네덜란드 매뉴얼에는 출처에 대한 정의가 등장하지 않지만 1910년 브뤼셀에서 처음 열린 ICA대회에서는 네덜란드 매뉴얼의 저자 중 한사람인 Muller의 제안에 따라 “각 보존문서를 그 보존문서가 속한 보존기록(풍)으로 모으고, 보존기록(풍) 내에서는 그 보존기록이 살아있는 유기체였을 때 그 보존문서가 속해 있던 시리즈로 보존문서를 모으는 조직 방법”이라는 정의를 채택하였다(Horsman 2002, 10). 출처를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4) 논거와 보강 : 기록유기체론과 실무적 이점

당시 유럽의 아키비스트가 관리해야 할 기록은 지난 세기에 행정기관에서 생산된, 손으로 쓰인 원본 문서들이었다. 이런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남겨진



문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러한 문서집합체가 본질적으로 유기체로서의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1857년부터 1868년까지 프랑스 제국기록관(Imperial Archives)의 관장이었던 레옹 드 라보르드(Leon de Laborde)는 “도서관은 사물을 다루지만 기록관은 사람과 같은 유기체를 다룬다(A library is something, archives are someone.)”는 표현을 통해 하나의 기록컬렉션을 분리하여 배치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Lowry 2017, 3).

네덜란드 매뉴얼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archieff’를 “그것을 생산한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성장, 발달 변화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유기적 종합체,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았다. 당시 아키비스트들이 이관받은 보존기록컬렉션은 더 이상 문서가 가감되거나 재구성되지 않는, 대체로 종결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살아있다”는 표현은 다소 이상할 수 있다. 유기체 비유는 기록이 그것을 생산한 기관의 “활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지고 항상 생산자의 기능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이다. 기록에 대한 대부분의 전통적인 정의는 “생산 기관의 활동의 산물로서 필요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산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물론 기록은 자연계의 물질이 아닌 사회적 생산물이다. 그렇지만 생산자의 활동 결과로 자연적으로 생산된다는 표현으로 기록의 속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Eastwood 2010).

이렇게 기록유기체론은 기록이 비의도적이고 자연스러운 산물이라는 기록속성론으로 뒷받침된다. 이는 보존기록의 생산과 형성이 자연적이고(자연성) 보존기록집합체의 구성요소들이 상호 연관되며(상호연관성), 각 보존문서는 내용이 동일한 문서가 존재한다 해도 그 문서가 놓인 관계의 고유성 때문에 유일하다(유일성)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주제 관련성에 따라 보존 문서를 분류하고 재조직하면 이러한 특성들은 손상된다(Eastwood 2010). 켄킨슨은 기록의 세 가지 속성과 함께 두 개의 다른 특징인 진본성과 불편부당성을 논하면서 출처와 원질서에 따라 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진본성을 보호하는 방어물이 된다고 보았다. 동시대의 이탈리아의 이론가 첸체티 역시 많은 보존기록의 진본성은 “생

산자와의 확고한 관계와 관련”된다고 보며 출처가 진본성 유지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Eastwood 2010). 기록유기체론은 원사료에 충실하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노력한 독일 사료학의 대표적 학자인 랑케(Ranke, 1795-1886), 드로이젠(Droysen, 1808-1884), 지벨(1817-1895)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Eastwood 2010, 6).

풍과 원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유용하였다. 등록제도가 잘 발달한 나라에서는 원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주제나 연대순으로 기록을 재조직하는 것보다 쉽고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었다(Posner 1950). 또한 종이형태의 기록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하는 환경에서 물리적 원질서의 존중은 기록의 생산맥락을 보호하는 최고의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Yeo 2010).

## (5) 반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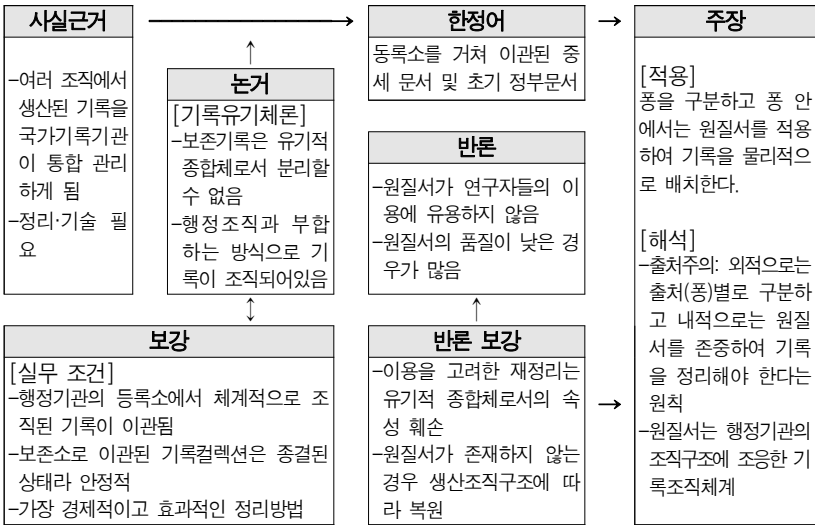
네덜란드 매뉴얼에서 제시한 원칙들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었다. 1930년대 출처주의의 중요성을 받아들인 스위스의 아키비스트 칼 바이벌(Carl Weibull)은 기록집합체의 원질서가 연구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질서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Horsman 1994, 52). 이러한 비판은 기록집합체를 유기적 종합체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같은 시기에 브렌케(Adolf Brenneke)는 경험이 부족한 문서정리원이 등록하거나 “엄격하고 질서정연한 품질”이 부족한 경우에도 원질서를 존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Horsman 1994, 52). 그러나 네덜란드 매뉴얼에서는 원질서가 훼손된 경우 조직의 구조를 반영하여 원질서를 복원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영어권 기록학 문헌에서 출처주의는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오래가지 않았고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비판이 나올 때까지 기록관리의 확고한 원칙으로서 자리를 지켰다.

## (6) 정립기의 논변구조와 논변 모형

정립기의 담론을 논변 모형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논변구조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부록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4> 정립기의 출처주의 논변 모형



## 2) 확산기

### (1) 기록관리환경과 관리대상 기록의 특징

확산기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웰렌버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43년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정부기능이 확대되는 가운데, 문서의 증가량은 가히 폭발적이었다(Cook 1997).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미국 정부기관들을 평가폐기를 위한 전문직을 필요로 하였고 이러한

환경에서 북미에 기록관리전문직이 등장하게 되었다.

셸렌버그는 수백만 미터에 달하는 기록을 폐기하는 과정에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셸렌버그와 미국 아키비스트들이 이끌어낸 기록학적 사고의 큰 변화는 레코드(records)와 아카이브(archives)를 구분한 것이다. 네덜란드 매뉴얼과 켄킨슨에 의하면 행정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접수된 모든 자료는 “아카이브”였다. 반면 셸렌버그는 유기적 종합체인 “records”에서 보존을 위해 선별된 일부만을 “archives”라고 칭하였다. 레코드는 레코드 매니저가 생산 기관에서, 아카이브는 아키비스트가 보존기록관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가기록보존소에서 만나는 것은 “어떤 조직이 생산한 기록 전체”로서 품은 아니었다. “어떤 기관의 기록 중 보존소로 이관된 기록 전체”가 하나의 품이었다. 셸렌버그 역시 기록이 유기적인 활동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Schellenberg 1961). 그러나 보존소는 더 이상 “유기적 종합체”로서 기록 전체를 다루지 않으며 선별되어 이관된 극히 일부분의 기록, 즉 보존기록을 위한 정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셸렌버그의 기록가치론에 따르면, 평가선별을 거쳐 보존소로 이관되는 기록은 2차적 가치를 갖는 기록이었다. 정보가치와 증거가치를 포함하는 2차적 가치는 명백히 연구자들의 이용에 중심을 둔 가치였다. 이중 증거가치 보호를 위해서는 출처와 원질서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이용을 고려하여 기존의 출처주의와는 다른 타협적 방식들을 고안하였다.

## (2) 주장 및 논거 1 : ‘레코드그룹’의 도입

셸렌버그는 정리와 기술에 있어서, “고도로 복잡한 정부”가 생산해낸 엄청난 양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레코드그룹(record group)”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는 복잡해진 정부환경에서 “켄킨슨의 아카이브 그룹의 요건, 즉 완전성(completeness)과 독립성이라는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정부부처는 없다. …주요 업무 사안에서는 모든 부서가 상호 연관되며, 완전

히 독립된 부서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유럽의 아카이브 풍(fonds d'archives)이나 젠킨슨의 아카이브 그룹과는 다른 ‘레코드그룹’ 개념을 도입하여 복잡한 정부주체가 생산한 기록을 정리·기술하기 위한 타협점을 모색하였다. 그는 ‘출처’뿐만 아니라 기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리와 기술 업무를 수행하기에, 그리고 인벤토리를 출판하기에 편리한 크기와 특성을 지닌 단위”로 레코드그룹을 구성하였다. 주제를 중심으로 출처가 다른 기록들이 하나의 레코드그룹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셸렌버그 1961, 199-200).

### (3) 주장 및 논거 2 : 원질서 복원

셸렌버그와 젠킨슨은 모두 풍 존중의 원칙이 기록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원질서 존중과 관련하여 셸렌버그는 “이해할 수 없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원질서라면 아키비스트가 레코드그룹 내에서 기록을 자유롭게 재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원질서 적용에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젠킨슨은 풍과 원질서 존중을 모두 기록의 무결성과 연관시킨 반면, 셸렌버그는 풍 존중의 원칙만이 무결성에 필수적인 원칙이고, 원질서 원칙은 아키비스트와 열람자의 “이용이나 편의”와 더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Duglas 2010, 39). 원질서는 ‘등록제도’가 잘 갖추어진 환경에서만 존중될 수 있으며,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원질서를 존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Yeo 2010).

이러한 ‘원질서 복원’의 흐름과 맞물려 논란이 된 것은 원질서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이었다. 1930년대 기록학자들이 원질서를 중시한 것은 원질서에 생산조직의 구조와 역사가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기록학자와 아키비스트들은 기록의 원래 구조가 “기록을 생성한 행정 조직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거라는 가정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도래했다”고 인식하게 된다(Brothman

1991; Eastwood 2000; Savoja and Vitali 2007). 현대 조직에서는 기록의 구조가 더 이상 조직의 내부 구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이탈리아의 발렌티(Filippo Valenti)는 원질서가 생산자의 생애와 활동을 직접 반영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첸체티 등이 생각하는 “이상적” 형태의 기록컬렉션을 그대로 받아 관리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복잡한 단계와 이관절차를 통해 보존소로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발렌티는 “원질서” 대신 기록(집합체)의 “구조”라는 용어를 추천했는데 이 단어가 “집합체”의 발견된 성질을 나타내는데 더 낫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구조는 발견된 어떤 것”인 반면에 원질서는 “의도적으로 부여한 어떤 것”이다(Savoja와 Vitali 2007, 125). 따라서 발렌티는 보존기록으로 이관되는 시점의 레코드그룹의 실제 구조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Barr)와 호스만(Horsman)도 발견되거나 또는 “받아들여진”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Nesmith 2005, 264). 바는 인수받은 기록집합체가 보존소에 도착했을 때의 질서를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고고학에서의 층(layers)”과 같다고 설명한다(Barr 1989, 143). 그 질서 안에 기록의 역사와 의미체계가 담겨있으며 이러한 질서를 통해 연구자는 기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네스미스(Nesmith) 역시 기록집합체의 원질서가 무엇인지 확실히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존소에 도착했을 때의 방식으로 기록을 표현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면서 기록은 “받아진 질서” 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Nesmith 2005, 264).

이러한 원질서 개념은 네덜란드 매뉴얼에서의 원질서와는 다른 것이었다. 네덜란드 매뉴얼에서도 원질서가 흐트러졌다면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물리적 재정리’를 권고하였지만, 여기에는 조직의 구조에 따라 보존기록의 구조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이러한 복원 혹은 재정리에 대한 신념은 부작용도 가지고 왔다. 일부 아키비스트들이 원질서의 이념, 즉 “조직체계와 기록조직체계의 일치”라는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미 존재하는 물리적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호스만은 “기록을 생산한

조직의 속성보다 기록집합체(record aggregation)의 속성이 존중되었다면 보존기록의 물리적 정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여러 기록시리즈들의 원래 용도와 의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비판하였다(Horsman 1999, 42).

이렇게 확산 초기까지는 원질서를 기록을 생산한 조직구조의 표현으로 으로 보았던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집합체에 존재하는 그대로의 질서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관 받을 때 편철구조와 같은 기본적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기록집합체에 대해서 ‘원질서 복원’을 재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실제로 ‘복원’이라기보다는 이용 편의에 초점을 둔 재정리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복원’되어야 하는 ‘상’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 (4) 반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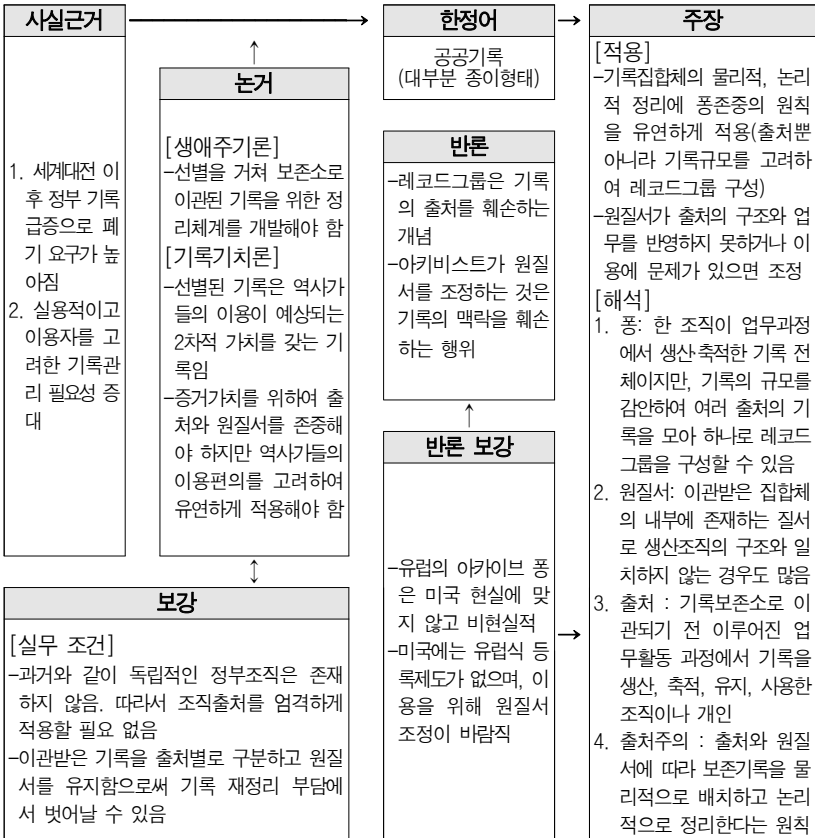
셸렌버그는 원질서뿐만 아니라 풍 존중에 있어서도 유연했다. 당시 통용된 풍의 정의는 “모든 행정기관, 모든 물리적, 조직적 개체가 그 기능이나 활동 때문에 자동적이고 유기적으로 축적하는 모든 성격의 문서 전체”이다(Barr 1987/1988). 이런 정의에 의거한다면, 셸렌버그의 레코드그룹은 이용이나 관리를 고려하여 집합화된 개체라는 점에서 풍 존중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실용적 접근법에는 “일관성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유기체로 보는 당시 유럽의 인식론에서는 다소 벗어난 것이며, 출처를 모호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Cook 1997).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북미에서 출처주의는 제한적 범위의 정리·기술 활동에만 사용되었다. 여기에조차 “셸렌버그의 레코드그룹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출처의 맥락적 힘을 약화”시켰고, “출처의 개념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실무 현장에서 무시당하거나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있었다”고 기술하였다(Cook 1997).

(5) 확산기의 논변구조와 논변 모형

셸렌버그로 대표되는 확산기 담론을 논변 모형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5>과 같다. 논변구조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부록 2>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5> 셸렌버그 등의 출처주의 논변 모형





### 3) 전환기

#### (1) 기록관리환경과 관리대상 기록의 특징

1930년대까지 프랑스, 네덜란드와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기록관리 원칙은 주로 오래된 기록을 정리·기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원칙은 당시 저자들의 시대, 장소, 그들이 마주했던 기록의 유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록의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록학의 핵심 주제는 기록평가론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출처주의를 조직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풍이나 레코드그룹을 설정하고 시리즈를 구성하는 문제까지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론과 현장의 괴리가 커지는 현상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정리원칙으로서 출처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지만, 호주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출처주의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당시 호주의 아키비스트들은 신생국가 호주의 정부기록의 정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전환기 담론으로는 호주의 '혁신적 문제제기'에서 시작하여 출처주의 논쟁이 본격화되는 1990년대까지의 주장들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는 시기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기록학자들이 큰 흐름을 형성하지만 출처주의와 관련된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은 확대 및 해체기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새로운 담론들은 19세기에 성립한 출처주의가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담론의 저자들이 인식한 환경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관료제와 행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조직구조의 변화가 빈번해졌으며, 더 이상 조직구조와 보존기록의 구조가 일치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조직구조에 따른 기록정리체계는 그 안정성을 위협받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조직의 조직구조가 보존기록을 정리하는 일차적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둘째, 기록보존소가 관리할 주요 대상은 생산이 종료되어 안정된 구조를 가진 고문서집합체가 아니었다. 네덜란드 매뉴얼의 저자들이나 쟈킨슨이 관리하던 기록은 대부분 오래전에 활동이 끝난 조직의, 종결된 기록집합체(closed fonds)였다. 반면 60년대 이후 기록은 여러 생산주체와 관리이력을 거쳐 기록보존소에 당도하였으며, 생산 및 추가가 계속되는 집합체(open fonds)에 속해있는 기록들도 이관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역동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정리체계를 필요로 하였다. 스콧의 동료인 호주 아키비스트 이안 맥린(Maclean)은 “지금 아키비스트들은 당대인들의 이용을 위해 과거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미래의 이용을 위해 현재 기록을 조직하는데 관심을 가진다”고 확신하였다(Eastwood 2010).

셋째, 자동화된 기술의 등장이다. 디지털기록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종이기록에 대한 전자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동화 기술은 출처주의의 새로운 이해를 촉발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 (2) 주장 및 논거 1 : 출처주의를 적용하는 새로운 정리기술법

호주의 아키비스트 피터 스콧은 1966년 기록과 생산자 간의 일대일 관계를 가정한 ‘기존의 출처주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행정조직 자체도 더 이상 단일 위계적인(mono-hierarchical) 구조나 기능을 갖지 않으며 기록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고려하여 기존의 레코드그룹 개념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cott 1966). 레코드그룹(풍)은 “이론적으로는 한 생산자의 기록 전체이고, 실제로는 기록보존소에 존재하는 한 생산자의 기록 전체”인데 스

곳은 당시 레코드그룹을 적용하는 정리방식이 보존기록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단일 위계적 정리체계에서 “파일은 하나 이상의 시리즈에 포함될 수 없고, 시리즈도 하나 이상의 품이나 레코드그룹에 소속될 수 없는 계층구조를 가져야” 했다(Holmes 1964, 27). 그러나 조직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업무나 기능이 하나의 부서나 기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될 때에도 물리적인 기록시리즈는 여전히 계속 유지되며, 다양한 생산자들이 하나의 시리즈에 기록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하나의 시리즈를 생산하는 복수의 조직이 존재하게 되는데, 기존의 해결책은 복수의 생산자가 만든 시리즈를 수많은 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스콧은 “잘못된 행정적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Scott 1966, 495).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스콧은 “시리즈 시스템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기록에 대한 기술(기록 통제)과 생산자에 대한 기술(맥락 통제)을 분리한 후, 하나의 시리즈를 다수의 생산자와 연계하는 방법”(Meehan 2013, 73)으로서, 스콧은 시리즈 시스템이 출처와 원질서를 존중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기록건들을 적절한 시리즈에 물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이것들을 각각이 속한 행정적 맥락과 원질서 속에 보관하고, 시리즈들을 더 이상 레코드그룹이나 서가 그룹(shelf group)의 원래 물리적 순서대로 보관하지 않는 대신, 다만 행정적 맥락과의 관련성을 문서상으로 기록한다.”(Scott 1966, 497)

생산자와 시리즈를 분리하여 기술하는 것은 기록과 생산주체 간의 관계가 계층적이라는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었다(Yeo 2010). 이 시스템에서 집합적 기술은 시리즈 계층 이하만 하고 품 계층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이 출처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었으나(Duchein 1983), 이후 대부분의 저자들은 시리즈시스템이 전통적인 단일 계층적 접근법보다 출처를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인정했다(Yeo 2010). 시리즈시스템을 통해 “수많은 생산자와 수많은 기록시리즈 사이의 복합적 상호관계를 기술할 수 있으며, 정적인 편목작업이었던 기술업무를 동적으로 변화시켰다(Cook 1997, 22-23).

스콧의 시리즈시스템은 지적 통제와 물리적 통제를 구분하고, 지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기술(description)을 바라보게 하였다. 이는 정리와 기술의 관계에 대하여 기존의 “기술은 정리를 반영하며, 기술은 반드시 일반적인 것에서 특정적인 것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Meehan 2013, 73-74). 쿡은 스콧이 네덜란드 매뉴얼 이후 기록학 이론의 기반이 되었던 “기록의 ‘물리성(physicality)’이라는 사고방식을 깬다”고 평가하면서, “탈보관주의적(postcustodial)” 혁명의 선구자라고 칭송했다(Cook 1997, 39). 스콧의 통찰력은 물리적 위치가 중요하지 않은 전자기록의 조직에 큰 시사점을 주었다.

그러나 스콧이 ‘물리적 정리체계’로서 출처주의를 모두 부인한 것은 아니다. 최상위의 기록계층이며, 네덜란드 매뉴얼이나 젠킨슨 등이 가장 중시했던 풍을 개념적 실체로 보았지만, 앞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기록시리즈 이하 계층의 물리적 구조를 인정하고 있고, 시리즈 안에서 물리적 원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Scott 1966, 497).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언어학 전공자로서 스콧의 지식도 배경과 함께 당시 등장한 전산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아날로그 관리환경에서는 기술을 정적인 표현물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고, 책자형태의 검색도구(인벤토리)에서 이러한 동적인 연계방식은 구현하기도 어렵거니와 이용자에게도 불편했을 것이다. 전산시스템이 없었다면 출처를 다대다 관계의 복합체로 관리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그쳤을 것이다.

### (3) 주장 및 논거 2 : ‘기능’으로서 출처의 재발견

북미지역에서 출처주의에 대한 새로운 주장은 미국의 베어만과 라이틀이 1985년 발표한 논문 “출처주의의 힘(The Power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에서 찾을 수 있다. 기록유기체론은 기록의 조직체계에 생산 조직의 구조와 기능이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성립된다. 베어만과 라이틀은 “현재의 기록관리는 유기체론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생산자들이 만든 기록의 원질서가 업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보다는 자신들이 기록을 이용하기 편하게 조직하며, 따라서 이러한 질서는 기록과 활동과의 연관성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출처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들은 출처 개념의 핵심은 기능에 있으며, 기능에 기반한 출처 정보는 대개 기록의 효과적인 검색과 이용을 위한 추론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주장했다(Bearman and Lytle 1985-86, 14).

특히 전자기록에 대한 선구적 사상가인 베어만은 새로운 분석법을 이용하여 조직부서가 아니라 조직의 사명, 기능, 그리고 조직의 활동과 업무와 기록을 직접 링크하도록 하였다(Bearman 1990, 111, Cook 1997, 42에서 재인용). 기록을 하나의 행정조직이 아니라 기능과 업무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출처의 개념이 더 풍부해진다고 보았다. 이른바 기능 출처(functional provenance)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당시 기록관리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기록학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쿡은 “전통적인 출처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기록을 행정조직으로 연결해야 했던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고 기록을 기능과 업무 프로세스로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많은 아키비스트들을 혼란에 빠뜨리겠지만 “기록학의 핵심적 원칙은 오로지 전통적 해석과 실무를 상당 부분 포기함으로써만 보존될 수 있다”고 말했다(Cook 1997, 42). 다시 말해 출처로서

기능의 의미를 인정한 것이다.

기록을 생산하게 만든 기능을 중시하게 된 것은 사회적 접근법의 영향 때문이다. 기록학에서 사회적 접근법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독일의 한스 부스(Hans Booms)였다. 그는 이용자나 행정가가 아닌, 사회 스스로가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기록의 중요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가치는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기록 생산자들의 기능을 연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기록생산자의 기능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접근법은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캐나다 전역에서 일어난 거시적 평가·수집 전략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이용자의 요구나 역사연구의 경향을 반영하고자 했던 기존의 방법론과 달리 캐나다적 접근법에서는 기록 생산자의 기능, 활동, 업무와 같이 기록이 생산된 맥락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Cook 1997, 31). 기록의 ‘거시적 맥락’에 주목하는 이러한 경향은 출처의 재해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테리 쿡은 새롭게 등장한 ‘출처’의 개념은 과거처럼 “구조적(structural)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functional)인 것”이며, 조직의 구조적 안정성이 사라져 가고 있는 현대에 보다 적합한 개념(Cook 1997, 31)이라고 평가했다.

캐나다의 휴 테일러(Hugh Taylor)도 사회적 접근법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전자기록환경에는 ‘개념적 구술성(conceptual orality)’이 내포되어 있으며, 구술 전통에서와 같이 ‘의미’는 ‘기록 자체’가 아니라 그 기록이 증거로서 기능하는 업무와 관습에 있다”고 보았다(Taylor 1987, 15-18; Cook 1997, 34에서 재인용). 따라서 테일러는 “기록이 어떻게, 왜 생성되었는지”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Taylor 1987, 24; Cook 1997, 34-35에서 재인용). 테일러의 이러한 노력을 네스미스는 “출처의 재발견”으로 높이 평가하였다(Nesmith 1993, 1-28, Cook 1997, 35에서 재인용).

이처럼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사회적 패러다임은 기록학계에서 기록과 출처에 대한 관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정부의 관점을

넘어 그 사회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기록생산자와 그 기능을 출처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것이다. 그 이전에 출처는 ‘기록을 생성한 행정조직’이었으나, ‘기록을 둘러싼 기능과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 (4) 주장 및 논거 3 : 풍, 원질서, 출처의 재해석

출처주의의 구성요소인 풍, 원질서, 출처의 개념이 이 시기에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스콧 이후에 전개된 출처주의에 관한 저자들의 주요 담론을 보면, 대체로 기존의 출처주의가 “기록집합체의 내적, 외적 구조의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성질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Cook 1993, 22). 기존의 출처주의는 “오래 전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조직이 만든 종결된 기록집합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풍의 개념을 바꿀 것을 주장한다. 공통의 출처를 가진 기록들을 모아야 하며, 공통의 출처를 보존하지 않는다면 기록의 의미와 맥락 지식이 손실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많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풍을 중시해왔다. 이러한 풍의 개념은 “생산자성(creatorship)”을 기반으로 하며, 개인이나 기관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기록의 집합체를 풍이라고 불려왔다(Cook 1993, 27). 풍은 물리적으로 한 곳에 배치된 물리적 집합체이자 조직구조를 반영한 논리적 집합체였다. 그러나 데브라 바(Debra Barr 1987-1988)와 쿡(Cook 1992)은 풍을 유지하되, 이를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논리적 구조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풍을 “기록 생산 과정에 대한 기술(메타데이터)을 비롯하여, 시리즈 이하 계층의 물리적 개체에 대한 기술, 기록 생산자의 행정적·역사적·기능적 속성에 대한 기술을 개념적으로 요약한 것(conceptual summary)”이라고 새롭게 규정하였다(Cook 1997, 33). 전통적인 접근법 적용에 제동

이 걸린 것은 풍을 물리적 실체로 보았기 때문이고, 풍을 지적 구조물로 보면 하나의 시리즈가 여러 개의 풍에 속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Eastwood 2000, 114).

더 나아가 작은 풍이 물리적 종합체가 아닌 개념적인 ‘전체’로서 기록생산자가 일련의 기록을 생산하거나 축적하는 유기적 과정을 반영하며, 생산자와 기록을 연결하는 ‘관계’ 속에서 출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록의 기술 체계는 이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ook 1997, 33).

시리즈 시스템과 ‘개념으로서의 풍’을 수용함으로써 ‘기록’과 ‘생산자’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묘사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 호주의 시리즈시스템에서는 이후 맥락개체의 한 종류로 ‘기능’을 포함하고, 기록과 맥락개체의 관계를 더 깊이 탐구하였다(Hurley 1995; Hurley 2004). 이어 SPIRT 프로젝트(Acland, Cumming and McKemmish 1999; McKemmish 외 1999)에서는 기록, 기관, 법규, 기능(또는 업무) 개체, 기록관리 개체 간의 연계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다개체 연계모형은 이후 제정된 메타데이터 표준인 ISO 23081에 적용되었다.

출처의 개념도 변화하였다. “논리적 구조물”로 인식된 풍은 각 개체들의 관계에 대한 기술을 모두 모은 것이다. 다시 말해, 풍은 기록과 생산자, 기록과 기능의 관계를 기술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바로 출처라고 보았다(Cook 1992, 73-74). SPIRT 모델도 각 개체간의 변화하는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출처’를 더 충실하게 반영하는 기술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Cook 등은 출처를 기록개체와 맥락개체 사이의 관계망으로 재정의하고, 맥락개체에 기록을 생산·이용·축적한 기관과 기록을 만들게 한 기능을 포함하였다(Hurley 1995, 252-53). 출처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ISAD(G)에서 채택됨으로써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 ISAD(G)에는 출처를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 과정에서 기록을 생산·축적·유지·이용한 개인이나 조직과 기록 사이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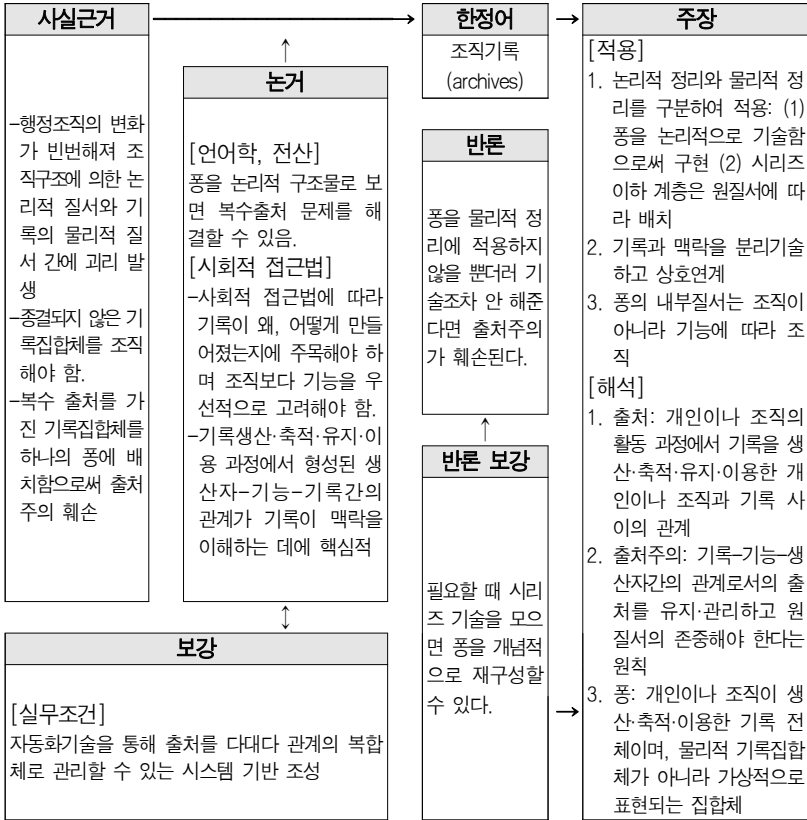
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출처를 “기록을 조직하기 위한 방법”이나 “기록을 생산 접수 이용한 개인이나 조직”이 아니라 “기록, 생산자, 기능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관계를 아키비스트들이 분석하여 만들어낸 논리적 구조”로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Douglas 2010). 따라서 출처주의도 과거처럼 “물리적 위치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추상적 개념을 구성하는 다수의 관계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Douglas 2010).

앞서 언급했듯이 스콧은 시리즈 이하 계층의 물리적 질서를 인정하고 여기에 원질서를 적용하였다. 물리적 공간에 속박된 질서를 구현하는 전통적인 출처주의와 달리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맥락을 표현할 수 있는 출처주의 구현을 위해 전산기술을 사용하였지만 1990년대까지는 여전히 종이기록이 많았다. “물리적인 배치가 제공하는 맥락의 의미가 상당히 사라지고 있고, 물리적으로 모으는 것보다는 기록 간의 복잡하고 논리적인 관계를 식별하는 관점에서 원질서의 원칙을 재해석해야 한다”(Cook 2001, 21-23; Eastwood 2000, 93)고 주장했지만 종이기록관리에 있어서 물리적 원질서의 존중은 여전히 중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록의 증가를 고려하여 원래의 ‘관계’를 보존하기 위한 기술의 역할이 점차 부각되었다. 출처를 관계로 볼 때 기록의 내적 질서는 ‘하나의 원질서’가 아니며, 수많은 관계망을 고려한 기술을 통해 이러한 질서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5) 전환기의 논변구조와 논변 모형

출처주의 개념의 대대적인 전환을 가져온 이 시기의 주요 주장을 중심으로 논변을 정리하면 <부록 3>과 같고, 논변 모형은 <그림 6>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6〉 전환기의 출처주의 논변 모형



#### 4) 확장 혹은 해체기

##### (1) 기록관리환경의 변화와 관리대상 기록의 특징

“아날로그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던 시기”에 나온 전환기 이론과 실무 방법론은 태생적 디지털기록(born digital records)을 관리해야 하는 시기에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기록이 생산되고 관리시스템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원칙과 현장의 괴리 현상이 다시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환경에서의 출처주의 해석을 둘러싼 담론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출처에 대한 고정적 해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의 해석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출처주의를 둘러싼 쟁점은 더 복잡해졌다. 출처 개념의 무한적 확장으로 보이거나 출처 개념의 해체로 귀결되는 듯한 논의들도 보인다. 따라서 확장 혹은 해체기의 담론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환경에서의 출처주의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환경에서 '관계로서 출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 적용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ISO 23081의 개체관계모델이나 ICA의 기술개념모델이 개발되었지만 디지털환경에서 이를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계층적 분류체계가 없는 기록생산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원질서 및 원질서 준종의 개념이 무엇인지 애매해졌다. 셋째, 데이터형 기록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문서형 기록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데이터형 기록에는 기존의 출처와 원질서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넷째, 사회적 다양성과 집단기억, 공식기록에서 배제되어온 주변부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산자 중심의 출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졌다.

한편 전자생산 및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상호연계형 메타데이터 관리가 수월해졌으며, 또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기술적 배경으로 정리할 수 있다.

## (2) 주장 및 논거 1 : 기록연속체론에 입각한 출처 개념의 확장

물리적 정리의 의미가 사라진 환경에서 출처주의는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 과거 물리적 집합체로서 품과 원질서를 통해 드러낼 수 있었던 출처가 전환기에는 생산자-기능-기록 간의 논리적 관계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디지

털환경에서는 보다 다양한 ‘관계’를 출처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메타데이터나 기술 관련 국제표준의 경향이다. 기록생산과 관리뿐 아니라 이용까지 포함하여 기록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관계 개념은 호주에서 시리즈시스템을 고안할 때부터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스콧과 맥린 등 호주의 아키비스트들은 당시 행정조직이 갈수록 더 유동적인 상황에서 보존기록을 식별하고 기술하는 문제를 두고 씨름했다. 그들은 출처가 본질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가능하며 다면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시리즈 구성뿐 아니라 생산, 보관, 통제를 둘러싼 관계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모든 행위자를 문서화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이 어디 있던지 행정부처럼 큰 조직의 기록에 대한 그림을 완벽하게 이어 맞출 수 있다. 현용기록과 보존기록 관리가 분절되는 대신 생애주기 전체가 연계되고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거시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안 맥린의 의견을 계승한 것이 바로 기록연속체론이다(Eastwood 2010). 기록연속체론을 실무로 구현하려면 기록, 행위자, 기록관리과정, 업무를 둘러싼 모든 관계들을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포착해야 한다.

또한 확장 및 해체기에는 전환기와 달리 기록의 하위계층인 시리즈, 철, 건 등 하위계층의 분류체계도 없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록건을 포함한 각 개체들 간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규정하는 원칙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 (3) 주장 및 논거 2 : 디지털환경에서 원질서

전통적 관점에서 ‘원질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기록생산자가 업무과정에서 형성한 종이 기록집합체의 내적 질서를 뜻했다. 네덜란드 매뉴얼에서는 원질서가 기록 생산조직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보았고, 이후 다른 학자들은 기록을 생산한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또는 기록 간의 논리적인 연계

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구조와 사건은 단순히 선형적인 관계를 넘어 매우 복잡한 논리적 연계를 가진다(Yeo 2010, 91-92). 디지털환경에서 기록의 원질서는 결국 이러한 구조, 사건과 기록의 관계를 포착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며, 관계의 복잡한 연결망은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직적 분류체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일까? 과거에 그러했듯이 분류체계가 관계의 “근원적인 복잡성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서”(Yeo 2010, 91)가 이제는 될 수 없는 것일까?

제인 장(Jane Zhang 2012)은 디지털 환경에서 ‘원질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3개의 디지털 기록시스템에서 원질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첫째, 디지털 형태로 생성되어 저장된 기록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복수의 논리적 관계를 공유한다는 일반적 가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자기록들은 여전히 종이 환경에서와 같이 단일 파일 구조로 묶여 있으며, 선형적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Zhang 2012, 183-185). 장은 “특정하게 정해진 질서가 없고 기록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되는 전자환경에서 원질서는 기록이 생산, 조직, 접근, 활용되는 맥락”이라고 해석하고, 아키비스트는 복잡한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맥락을 보존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기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메타데이터 중심의 기록관리환경에서는 복수의 원질서 표현이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Zhang 2012, 185-186). 파일 구조가 아닌 메타데이터로 관리되는 기록들에는 고정된 하나의 질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속에서 상당히 복잡한 전자기록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파일구조 혹은 메타데이터로 표현되는 원질서는 평가, 수집, 처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산자가 만든 기록 메타데이터는 시스템에 자동 매핑되며 그러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록건·철 계층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Zhang 2012, 186-187).

넷째, 기록의 계층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원질서는 기록의 생산·이용과

정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는 측면에서 검색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편 건 계층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디지털 기록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Zhang 2012, 187-188). 전통적인 파일링 구조를 적용한 검색시스템에서 정보의 생산자가 누구이고 정보가 어느 파일에 있을지 유추해야 원하는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다. 즉 간접적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건 메타데이터를 통해 기록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가능해졌다.

다섯째, 디지털 보존은 집합적 계층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디지털 객체를 보존하려면 건 계층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보존 방법론은 기록의 표현을 철계층에서 건계층으로 이동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Zhang 2012, 188-189).

여섯째, 디지털 아카이브에는 두 가지 표현형이 있었다. 높은 계층의 기술(출처 및 시리즈 계층)은 아키비스트가 수작업으로 생성한 것이며, 낮은 계층의 기술(건 및 철 계층)은 기록 생산자가 제공한 것으로서, 자동적으로 디지털 보존 시스템에 매핑되고 기록 표현 시스템에 링크된다.

디지털아카이브에서 원질서는 메타데이터로 통해 표현되며 메타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기록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즉 종이 기록 환경과 달리 디지털환경에서는 복수의 원질서가 존재하고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원래 생산조직의 파일분류시스템에 존재하던 질서에 따라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증거로서 기록을 이용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며, 따라서 디지털환경에서도 이러한 원질서는 강력한 맥락기반의 검색지원 도구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생산자가 형성한 원질서로서 분류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프리 여는 증거적 목적을 위하여 기록을 묶는 것이 활용 측면의 다양한 기준으로 묶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출처에 따른 분류체계가 필수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기록의 고정된 계층체계를 탈피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선택한 질서를 만들 수 있고, 원할 때 자신만의 집합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Yeo 2012). 여의 주장과 같

이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후조합 방식으로 기록을 분류(집합화)하는 것은 현재 많은 시스템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분류에 대한 여의의 견은 장이 조사한 기록관리현장전문가들의 입장과는 아직 차이가 있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기록을 계층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 철, 시리즈라는 계층적 분류체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향후 대부분의 업무의 산출물은 데이터셋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쿡은 20세기 말에 이미 “기록의 개념은 구조, 맥락, 내용이 한데 결합된 단일체에서 수많은 흩어진 조각들이 연결된 가상의 복합체라는 개념으로 변화해 갈 것”(Cook 1997)이라고 예측했는데 ‘데이터형 전자 기록’이 양산되는 현 상황에서 그의 예측은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맥락을 기록화하고 계속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베어만(Bearman 1996)이 예견했듯이 전자기록관리가 진행됨에 따라 기술(description)의 중심이 건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최근 호주의 연구자들은 더 이상 시리즈조차 특별히 취급하지 않는다. 한 때 ‘자연적인 구성물’이자 중요한 기록통제단위로 인정받았던 시리즈 역시 해체될 수 있을 것이다(Yeo 2010).

전자환경에서 원질서를 “기록이 생산, 조직, 접근, 활용되는 맥락”이라고 해석한다면(Zhang 2012) 원질서 존중은 생산, 관리, 이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와 그 관계를 포착하여 기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논리적 계층체계로 구현되는 원질서는 점차 관계형 질서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원질서 개념은 데이터형 기록의 조직 방향을 논의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4) 주장 및 논거 3 : 출처로서 ‘기록관리 과정’

정립기와 확대기에는 기술보다는 물리적 정리를 통해 맥락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전환기에 들어서면 ‘기술(description)’의 중요성이 부각되

었다. 전환기에도 시리즈 계층의 기록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리적 정리지계로서 원질서는 존중되었다. 그러나 디지털환경에서 실재하는 객체의 물리적 배치를 의미하는 정리는 그 의미가 사라졌으며(Yeo 2010), 출처주의는 기술 혹은 메타데이터를 규정하는 원칙으로 전환되었다. 출처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정리에서 기술로 전환되면서 기술정보로서 ‘출처’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먼저 로라 밀러(Laura Millar 2002)는 기록학계가 출처에 대해 여전히 생산자 중심의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전통적으로 풍을 “생산, 축적, 이용된 기록의 종합체”로 정의해왔으면서도 출처의 개념이 오랫동안 ‘생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축적’과 ‘이용’에도 관심이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밀러는 고고학과 미술계가 사용하는 ‘출처’의 개념을 응용하여 기록 출처 개념을 다음과 같이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Millar 2002, 12-13). 첫째, 생산자 내력(creator history)인데 이는 누가 기록을 생산·축적·이용했는가에 대한 정보로서 기록학계가 이미 채택해온 출처 개념이다. 둘째, 기록의 내력(records history)으로 기록의 물리적 관리 내력과 이동 내력을 의미하며, 이는 예술 출처를 차용한 것이다. 셋째, 관리이력(custodial history)으로 생산자로부터 현재 기록관으로 오기까지 기록의 소유권이나 보관의 변천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고고학적 출처를 강화하여 적용한 것이다. 이관 내력은 물론 평가, 기술, 목록 등 관리이력을 출처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록전문직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인식할 것과 더 투명한 기록관리를 요구하는 것”(Millar 2002, 13-14)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밀러의 관점과는 다르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기록학자들도 기록관리과정이 기록의 의미 맥락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아키비스트가 기록의 평가선별, 정리지술, 서비스 등의 업무를 통해 이용자가 기록을 이용하는 맥락을 결정한다고 보았다(Brothman 1991; Cook 2001; Duff and Harris 2002; Ketelaar 2001; MacNeil 2005; MacNeil 2008; Yake



2003; Nesmith 2002). 네스미스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기록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기록을 만드는 이가 새겨 넣지만, 기록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대부분은 물리적 경계선 밖, 즉 해석의 맥락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맥락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는 아키비스트들은 기록의 공동 저술자다.”(Nesmith 2002, 35).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아키비스트나 보존소를 기록의 출처 맥락의 일부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ouglas 2010, 37). 노드랜드(Lori Podolski Nordland)는 ‘2차적 출처(secondary proven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의 재해석자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Nordland 2004, 153).

#### (5) 주장 및 논거 4 : 사회적 맥락으로서의 출처

새로운 시기에는 생산이나 관리 맥락을 넘어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게 되었다. 테리 이스트우드(Therese Eastwood)는 “기록은 자연적으로 생산될 수 있지만 보존기록이 “거치게 되는 과정은 사회적”이며 보존기록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보존기록이 형성되는 사회적 맥락을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Eastwood 2010). 네스미스는 보존기록의 출처에 대한 전통적 해석이 하나의 개인이나 가족, 조직에 기록을 너무 밀접하게 묶어두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전통적 해석으로는 기록집합체의 형성과 관련된 사회적 지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Nesmith 2002, 35). Nesmith 등은 “기록 생산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 관심을 촉구하고, 생산이 기록의 작성, 관리, 이용, 해석, 표현과 기록서비스를 포함하는 연속적인 행위를 따라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출처는 이처럼 기록의 생산맥락과 계속 연관되어 있지만 맥락은 훨씬 더 넓어져야 한다. 따라서 네스미스는 출처를 “기록이 생산, 전달, 맥락화, 해석되는 사회적·기술적 과정”으로 정의한다(Nesmith 1999, 146).

네스미스는 특히 ‘사회적 출처’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사람들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회적 환경에서 기록을 만들고 보관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기록의 출처에 대한 분석에는 기록이 생산된 사회의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Nesmith 2006, 352).

그는 캐나다 북부지역에 살았던 조안 스타인브룩(Johann Steinbruck)이라는 모피상인이 쓴 일기를 예로 설명한다. 일기에는 그가 만난 캐나다 원주민으로부터 얻은 매우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일기는 자작나무껍질을 사용한 매체에 쓰여 있었다. 그는 원주민 아내와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 네스미스는 “이 보기 드문 문서는 원주민 사회와…유럽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되었으며 “원주민사회에 동화된 유럽 태생의 남자가 생산한 기록은 보통 유럽인들이 만들어 낸 어느 기록과는 매우 다른 증거를 지닌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기의 “사회적 출처”가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Nesmith 2006, 253-54; Douglas 2010, 33-34에서 재인용). 원주민사회와 그 상인의 관계가 그 일기의 ‘사회적 출처’가 되는 것이다. ‘사회적 출처’는 “기록생산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의 결정과 행동방식에 영향을 주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Douglas 2010, 34).

조엘 월(Joel Wurl)은 기록의 생산과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족성을 “소속집단의 사회적 사고”와 “집단의식”의 한 형태로 설명하면서 민족성을 주제 분야나 테마가 아니라 기록의 출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족공동체 안에서 생산된 기록은 민족성에 대한 것이 아니며,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민족성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고 보았다(Wurl 2005, 69; Douglas 2010에서 재인용).

지넷 배스틴(Jeanette Allis Bastian) 역시 기록생산과 관리에 대한 ‘공동체’의 영향을 조사하였다(Bastian 2006; Bastian 2003). 식민지 시대와 독립 후의 미국령 버진군도 내에서의 보존기록 실무를 연구한 결과, ‘공동체’는 “기록을 생산하는 실체이자 생산한 기록을 맥락화하는 기억 프레임으로 기능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공동체와 기록 사이의 역동적인 시너지효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기록의 공동체”란 용어를 만들었다(Bastian 2003, 3-4). “기록의 공동체” 안에서, 기록의 내용을 작성한 사람들뿐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들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버진군도의 식민지 정부가 생산한 기록에 이와 같은 관점을 적용하면, 군도의 토착민과 노예 노동자로 섬으로 데려온 이들, 즉 식민지 통치의 대상이었던 이들도 생산과정의 일부에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식민지 기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3)</sup> 케틀라(Ketelaar)도 “통치자와 피통치자 둘 다 식민지 사회에서 생산된 기록의 출처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배스틴의 견해에 동의하였다(Ketelaar 2005, 52; Douglas 2010에서 재인용). 이렇게 “기록의 공동체”에서 ‘기록의 대상’은 공동생산자로서 인정된다. 기존의 출처 개념으로 볼 때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기록은 일본의 통치기구로서 총독부 조직이 생산자이지만, 사회적 출처 개념으로 보면 식민지 조선인들도 공동생산자로서 중요한 출처가 되는 것이다.

“기록의 공동체”란 개념은 또한 기록생산에서 집합적 기억의 중요성과 장소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집단기억의 형성에서 보존 기록의 의미에 관한 많은 글들이 저술되었으며, 집단기억이 어떻게 기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케틀라는 “모든 기억은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알박스의 집단기억 이론에 근거하여, 기록이 사회의 집단기억 형성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 기록은 집합적 기억의 영향을 받아 생산된다고 주장하였다(Ketelaar 2005, 46). 배스틴은 집단기억이 담긴 어떤 ‘장소’나 기록보존소도 출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거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뉴햄프셔의 맥도웰 콜로니(MacDowell Colony) 기록보존소에 대한 연구에서 기록생산에 집단기억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이 아카이브에는 예술인촌에 예술가가 거주하는

3) 배스틴은 “노예가 없었다면, 노예명단은 필요 없었을 것이고, 인구가 없다면, 인구조사 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Bastian 2006, 282-83)

동안 만들어지거나 영감을 얻은 많은 책, 예술품, 악보와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다. 공동체와 생산자와의 관계에서 각 생산자의 기증물이 구성되고, 이것이 집단기억의 일부가 되거나 이후 창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거주지의 컬렉션 발전과정을 집단기억 개념과 연결하였다. 따라서 이 기록의 출처는 그 생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생산자로서 공동체 및 기록보존소와 생산자의 관계가 된다. 거주지의 집합적 기억이 담긴 물리적 장소 역시 기록 출처의 일부가 된다 (Bastian 2003-2004, 15-16; Douglas 2010, 35에서 재인용).

이러한 담론을 통해 출처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날로 복잡해지는 업무환경에서 맥락요소들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행위와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출처개념이 확장된다면 그 개념의 경계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출처라는 거시적 개념까지 들어가면 출처는 거대한 맥락정보의 집합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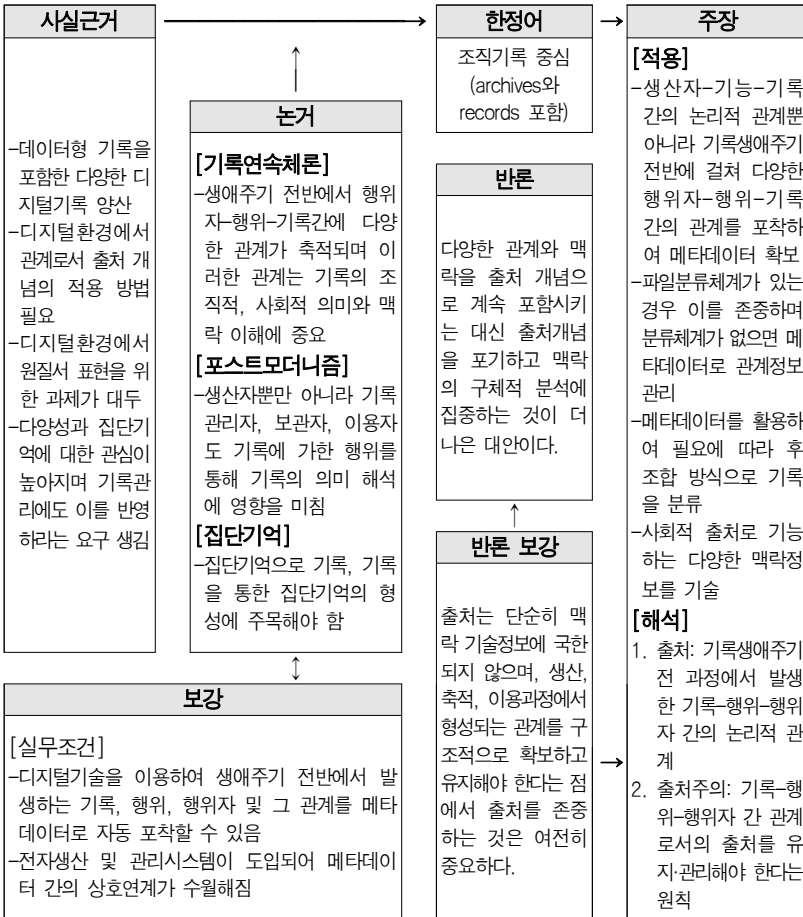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더글라스는 기록생산과 관리, 사회관계의 모든 측면의 맥락을 포함하기 위하여 출처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보다 맥락의 유형을 구분하여 이를 각각 기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지 묻고 있다(Douglas 2010). 굳이 출처라는 애매한 상위 개념을 두지 말고 분화된 의미의 많은 맥락 개념을 바로 사용하자는 조언으로 읽힌다. 출처 개념의 지속적 확장이 출처 개념의 해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출처는 단순히 맥락 기술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산, 축적, 이용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구조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처 존중은 여전히 중요하다 볼 수 있다.

## (6) 확장·해체기의 논변구조와 논변 모형

디지털환경에서 출처주의에 대한 논변 모형을 〈그림 7〉과 같이 제시하고 구체적인 논변구조는 〈부록 4〉로 정리하였다. 사회적 출처를 중시하는

경우 공동체나 기록생산주체가 기록의 해석과 표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정리기술에 대한 제안이 있으나(Shilton and Srinivasan 2007) 조직론에 입각한 출처주의 논변을 구성할 만큼의 내용을 확보하기 이를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그림 7〉 확장·해체기의 출처주의 논변 모형



## 4. 결론

### 1) 종합비교

19세기 말 출처주의는 당시 독일 실증주의 사료학(historiography)의 영향을 받은 기록유기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주로 고문서 중심의 ‘종결된 기록 품’을 정리하기 위한 실무적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유럽의 출처주의가 북미지역으로 확산되었고, 20세기 중반 이후 기록관리 환경은 유동성과 복잡성이 날로 높아지고 계속 생산이 이루어지는 현대 정부조직의 ‘열린 품’을 관리하게 되면서 아키비스트들은 출처를 다대다 관계망으로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언어를 채택하게 된다. 기록집합체의 물리성과 논리성을 구분한 것이다.

본격적인 디지털환경에 들어서면서 출처 및 원질서는 물리적 생산자 개념에서 벗어남은 물론 기록연속체론에 입각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망으로 그 개념이 확대 전환되었다. 아울러 역사학, 사회학, 문학과 문화 연구에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사회역사적 맥락으로서 출처에 주목하면서 출처 개념은 생산자성을 넘어 그 외연이 더욱 확장되었다(Douglas 2010). 이러한 출처 개념의 확장은 출처주의가 기록의 정리(분류) 보다 기술(메타데이터)을 통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영역별 논변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출처의 개념이 생산자성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형성되는 다양한 관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원질서의 개념 역시 이제 하나의 질서에서 복수의 관계로 표현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환경에서도 여전히 파일분류체계와 같이 논리적 계층체계로 표현되는 원질서가 존재하지만, 점차 관계형 질서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출처와 원질서는 개념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표 1〉 출처주의 담론 요소별 주요 내용 요약

	정립기	확산기	전환기	확장·해체기
환경인식	중앙집중적인 국가 기록보존소가 설립되어 다양한 조직의 기록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기술해야 함	세계대전 이후 정부기록 급증으로 폐기에 대한 요구 높아졌고, 입수된 기록을 실용적이고 이용자를 고려하여 조직할 필요 발생	-조직변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열람기록이 많아짐에 따라 조직에 의한 논리적 질서와 기록의 물리적 질서간 괴리 발생 -복수의 출처를 가진 기록을 하나의 품에 배치함으로써 출처주의가 훼손됨	-다양한 디지털기록이 생산되며, 디지털환경에서 출처 개념과 원질서 개념 적용에 어려움 발생 -다양성과 집단기억을 고려한 기록관리 필요
관리대상	등록소를 거쳐 이관된 중세 및 초기 정부문서(종이기록)	공공기록(archives)(종이기록)	조직기록(archives)(종이기록 중심, 일부 전자기록)	조직기록 중심(archives + records)(전자기록 중심)
이론적 근거	<b>[기록유기체론]</b> -보존기록은 유기적 종합체로서 분리할 수 없음 -행정조직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조직되어있음	<b>[생애주기론]</b> -선별을 거쳐 보존소로 이관된 기록을 위한 정리체계를 개발해야 함 <b>[기록가치론]</b> -선별된 기록은 역사가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2차적 가치를 갖는 기록임 -증거가치를 위하여 기록을 출처별로 모으고 원질서 유지 -다만, 이용의 편리를 위하여 출처주의를 유연하게 적용	<b>[언어학, 전산]</b>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언어와 같이 품을 논리적 구조물로 보면 복수출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b>[사회적 접근법]</b> -사회적 접근법에 따라 기록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주목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조직보다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기록생산·축적·유지·이용 과정에서 형성된 생산자-기능-기록간의 관계가 맥락 이해에 핵심임	<b>[기록연속체론]</b> -생애주기 전반에서 행위자-행위-기록간에 다양한 관계가 축적되며 이러한 관계는 기록의 조직적, 사회적 의미와 맥락 이해에 중요 <b>[포스트모더니즘]</b>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록관리자, 보관자, 이용자도 기록에 가한 행위를 통해 기록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침 <b>[집단기억]</b> -집단기억으로 기록, 기록을 통한 집단기억의 형성에 주목해야 함
실무 조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정리방법 -보존소로 이관된 기록컬렉션은 종결된 상태라 안정적	-과거와 같이 독립적인 정부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조직출처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음 -이관받은 기록을 출처별로 구분하고 원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기록 재정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	자동화기술을 통해 출처를 다대다 관계의 종합체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이 마련됨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여 생애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기록, 행위, 행위자 및 그 관계를 메타데이터로 자동 포착할 수 있음 -전자생산 및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메타데이터 간의 상호연계가 수월해짐

<b>출처</b>	각 보존문서를 그 보존문서가 속한 보존기록(풍)으로 모으고, 보존기록(풍) 내에서는 그 보존기록이 살아있는 유기체였을 때 그 보존문서가 속해 있던 시리즈로 보존문서를 모으는 조직 방법	기록보존소로 이관되기 전 이루어진 업무활동 과정에서 기록을 생산, 축적, 유지, 사용한 조직이나 개인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 과정에서 기록을 생산, 축적·유지·이용한 개인이나 조직(생산자)과 기록 간의 관계	기록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행위-행위자 간의 논리적 관계
<b>원질서 존중</b>	생산자의 '행정구조'에 조응하는 풍내의 질서 존중	1인생산자의 행정구조 및 업무에 조응하는 풍(그룹) 내 질서에 따라 기록을 배치 2인 생산자가 남긴 그대로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배치	1. 생산자가 남긴 시리즈계층 이하의 물리적 질서를 존중 2. 생산자-기능-시리즈기술 간의 관계 존중	-생산자의 전자파일분류체계 존중 -기록-행위-행위자 간의 관계를 메타데이터로 포착(논리적 계층체계로 표현되던 '원질서'가 점차 복수의 '관계형 질서'로 대체되고 있음)
<b>출처주의 정의</b>	외적으로는 출처(풍)별로 구분하고 내적으로는 원질서를 존중하여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는 원칙	출처와 원질서에 따라 보존기록을 물리적으로 배치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원칙	기록-기능-생산자 간의 관계로서의 출처를 유지·관리하고 원질서(계층체계로 표현됨)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기록-행위-행위자 간의 관계를 포착하여 기술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원칙
<b>출처주의 적용</b>	<b>[정리업무]</b> 풍을 구분하고 풍 안에서는 원질서를 적용하여 기록을 물리적으로 배치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b>[정리업무]</b> -보존기록의 물리적, 논리적 정리에 조정된 풍존중의 원칙을 적용한다. -출처와 기록규모를 결합한 기준에 따라 레코드그룹을 구성한다. -원질서가 출처의 구조와 업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혹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질서를 재조정한다.	<b>[정리와 기술]</b> -논리적 정리와 물리적 정리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기록과 맥락(생산자와 기능)을 분리하고 기술하고 연계함으로써 출처를 존중한다. -풍의 내부질서는 조직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 조직한다. 원질서는 기록이 기능별로 편재되는 질서이어야 한다.	<b>[기술과 분류]</b> -다양한 행위자-행위-기록 간의 관계를 포착하여 메타데이터 확보해야 한다. -파일분류체계가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하며 분류체계가 없는 경우 정교한 메타데이터로 관계정보를 관리한다. -사회적 출처로 기능하는 다양한 맥락정보를 기술한다.

그러나 다양한 관계 중에서 최초의 생산을 야기한 기능과 생산자와 기록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며, 이것이 출처 존중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존재하는 기록생산자의 파일분류체계를 유지하고 메타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포착하고 이



를 기술함으로써 원질서를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주의 준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록생산자 및 생산자의 기능을 포함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형성된 행위, 행위자, 기록 간의 관계를 잘 포착하고 이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단지 링크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기술이 적절히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철건 중심 메타데이터 자동생성과 링크만으로 출처주의를 지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타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기술과정을 구조화하는 것과 아키비스트가 지적 노력을 통해 추가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기록의 조직에 있어서 출처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 2) 맺음말

기록관리를 선진화하려면 단기적이고 부분적 대안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의 기록관리라는 큰 틀 속에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국가의 기억을 보존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보존기록 조직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험과 고민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출처주의 해석의 변화과정으로 살펴보고 어떤 관점과 어떤 상황인식에서 그러한 해석이 이루어졌는지를 논변 구조를 통해 분석하였다.

출처주의는 기록학의 매우 오래되고 진부한 주제인 듯 보이나 최근 북미와 유럽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출처주의 및 기록조직론의 전면적 변화를 예고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한편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출처주의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디지털 기록이 양산되는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론은 아날로그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기능분류체계에 따라 관리되던 기록 중 보존가치가 있는 일부 기록을 이관 받게 되는

현실에서 전통적 출처주의에 입각한 현재의 정리 방침은 전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전환기 및 확장·해체기의 출처주의 논변은 이런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기록건과 철의 통제를 중시하는 한국의 특수한 기록관리 문화, 기능분류에 따라 관리되던 전자기록이 대량 이관되는 상황에서 보존기록의 정리기술정책을 “관계 중심의 출처주의”에 따라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이론을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개념과 이론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과거 원칙의 설부른 용도 파기는 무비판적인 수용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서구의 기록관리 이론과 원칙이 어떤 인식을 토대로, 어떤 환경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은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2011.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기록관리업무표준(NAK/S 14:2011(v2.0)).
- 국가기록원. 2007. 국가기록원 소장물 가이드. 대전: 국가기록원.
- 권명화. 2006. 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변구조 분석: 문화이론과 정책논변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5(3), 203-240.
- 김대성, 김연아. 2007. 정책논변모형을 통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담론분석. 『한국정책연구』, 7(2), 45-67.
- 박성진. 2002.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분류방식. 『기록학연구』, 5, 179-208.
- 박성희. 2014. 아규멘테이션: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사회의 논쟁법. 서울: 이화출판사, 2014.
- 방효순. 2002a. 출처주의의 새로운 경향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 69-92.
- 배성준. 2004.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체계의 복원. 『기록학연구』, 9, 41-73.
- 설문원. 2012.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203-232.
- 설문원. 2003.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위한 기능분류 체계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1), 457-488.

- 설진아. 2009.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논증모형에 관한 분석 연구: <PD수첩>의 '줄기세포'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3), 370-394.
- 유민봉. 1994. 정책분석틀로서의 정책논변모형. 『한국행정학보』, 28(4), 1175-1190.
- 이승억. 2013. 경계 밖의 수용 :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연구』, 38, 189-223.
- 이승억. 2002.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개념에 관한 재검토. 『기록학연구』, 6, 41-72.
- 이승일. 2006.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법무 문서군의 분류 방안. 『서지학연구』, 35, 113-143.
- Acland, G. K, Cumming, and S. McKemmish. 1999. The end of the beginning; the SPIRT Recordkeeping Metadata Project. Retrieved June 2, 2016 from <http://www.sims.monash.edu.au/research.rcrg.publications/asaq99.html>.
- Barr, Debra. 1987-1988. The Fonds concept in the Working Group on Archival Descriptive Standards Report, *Archivaria*, 25, 163-70.
- Barr, Debra. 1989. Protecting provenance: Response to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Description at the Fonds Level, *Archivaria*, 28, 141-45.
- Bastian, Jeanette Allis. 2003. *Owning Memory: How a Caribbean Community Lost its Archives and Found its History*, Westport: Libraries Unlimited.
- Bastian, Jeanette Allis. 2003-2004. In a 'House of Memory': Discovering the provenance of place. *Archival Issues*, 28, 9-19.
- Bearman, David. 1994. *Electronic Evidence*. Pittsburgh: Archives & Museum Informatics.
- Bearman, David & Lytle, Richard. 1985. The Power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Archivaria*, 21(Winter 1985-86), 14-27.
- Brothman, Brien. 1991. Orders of value: Probing the theoretical terms of archival practice. *Archivaria*, 32, 78-100.
- Bunn, Jenny 2014. Questioning autonomy: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the principles which govern archival description. *Archival Science*, 14, 3-15.
- Cook, Terry. 2001.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 3-24.
- Cook, Terry. 1997.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17-63.
- Cook, Terry. 1993. The concept of the archival fonds in the post-custodial era: theory, problems and solutions. *Archivaria*, 35, 24-37.
- Cook, Terry. 1992. The concept of the archival fonds: Theory, description and provenance in the post-custodial era. In: *The Archival Fonds; From Theory to Practice*. Terry Eastwood, ed. Ottawa: Bureau of Canadian Archivists.

- Douglas, Jennifer, 2010. Origins : evolving ideas about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n: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Terry Eastwood and Heather MacNeil, ed. 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23-43.
- Duchain, Michel, 1983. Theoretical principles and practical problems of Respect des fonds in archival science. *Archivaria*, 16, 64-82.
- Duff, W. M. & Harris, V. 2002. Stories and names: Archival description as narrating records and constructing meanings. *Archival Science*, 2, 263-85.
- Eastwood, Terry. 2010. A contested realm : The nature of archives and the orientation of Archival Science. In: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Terry Eastwood and Heatehr Macneil, ed. 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3-21.
- Eastwood, Terry. 2000. Putting the parts of the whole together: Systematic arrangement of archives. *Archivaria*, 50, 93-116.
- Holmes, O. W. 1964. Archival arrangement: Five different operations at five different levels. *American Archivist*, 27, 21-41.
- Horsman, Peter 2002. The last dance of the phoenix, or the de-discovery of the archival fonds, *Archivaria*, 54, 1-23.
- Horsman, Peter, 1994. Taming the elephant: An orthodox approach to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n: *The Principle of Provenance: Report from the First Stockholm Conference on the Archival Principle of Provenance*, September 2-3, 1993. Stockholm: Swedish National Archives.
- Horsman, Peter, 1999. Dirty hands: A new perspective on the original order. *Archives and Manuscripts*, 27, 42-53.
- Hurley, Chris, 2004. Relationships in records.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sims.monash.edu.au/research/rcrg/publications/relationships-in-records-r-ev-3b.rtf>.
- Hurley, Chris. 1995. Problems with provenance. *Archives and Manuscripts*, 23, 234-59.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2000. 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2nd ed. Madrid: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 Ketelaar, Eric. 2005. Sharing: Collected memories in communities of records. *Archives and Manuscripts*, 33, 44-61.
- Ketelaar, Eric. 2001. Tacit narratives: The meaning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1, 131-41.
- Lowry, James, ed. 2017. *Displaced Archives*. Abingdon(UK): Routledge.
- MacNeil, Heather 2005. Picking our text: Archival description, authenticity, and the archivist as editor. *American Archivist*, 68, 265-78.

- MacNeil, Heather. 2008. Archivalterity: Rethinking original order, *Archivaria*, 66, 1-24.
- Meehan, J. 2013. Arrangement and descrip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Archives and Recordkeeping: Theory into Practice*, Caroline Brown, ed, Facet Publishing.
- Millar L. 2002. The death of the fonds and the resurrection of provenance: archival context in space and time, *Archivaria*, 53, 1-15.
- Muller, Samuel; Feith, J. A. & Fruin, R. 2003. *Manual for the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Archives: Drawn up by Direction of the Netherlands Association of Archivists*, 2nd ed., trans. Arthur H. Leavitt,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Nesmith, Tom. 2006. The concept of societal provenance and records of nineteenth-century Aboriginal-European relations in Western Canada: Implications for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Archival Science*, 6, 351-60.
- Nesmith, Tom. 2005. Reopening archives: Bringing new contextualities into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Archivaria*, 60, 259-74.
- Nesmith, Tom. 2002. seeing archives: Postmodernism and the changing intellectual place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65, 24-41.
- Nesmith, Tom. 1999. Still fuzzy but more accurate: Some thoughts on the 'ghosts' of archival theory, *Archivaria*, 47, 136-150.
- Pohjola, Raimo. 1994. The principle of provenance and the arrangement of records/archives. In: *The Principle of Provenance: Report from the First Stockholm Conference on Archival Theory and the Principle of Provenance*, 2-3 September 1993, Stockholm: The Swedish National Archives, 87-98.
- Posner, Ernst. 1950. Max Lehmann and the genesis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n: *Archives and the Public Interest: Selected Essays by Ernst Posner*, Ken Munden, ed.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6, 36-44.
- Posner, Ernst. 1940. Some aspects of archival development since the French Revolution. In: *Archives and the Public Interest: Selected Essays by Ernst Posner*, Ken Munden, ed.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6, 23-35.
- Ridener. 2011. *From Polders to Postmodernism: A Concise History of Archival Theory*. Duluth(MN), Litwin Books.
- Savoja, Maurizio & Vitali, Stefano. 2007. Authority control for creators in Italy: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5, 121-47.
- Schellenberg, Theodore R. 2001. 『현대 기록학개론』. 이원영 옮김. 서울: 진리탐구. 원전 :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1956.

- Scott, P. J. 1966. The record group concept: A case for abandonment. *American Archivist* 29, 493-504.
- Shilton, Katie & Srinivasan, Ramesh. 2007.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Archivaria*, 63, 87-101.
- Stapleton, Rick. 1983-1984, Jenkinson and Schellenberg: A comparison. *Archivaria*, 17, 75-85.
- Taylor, H, A. 1987. Transformation in the Archives: Technological Adjustment or Paradigm Shift. *Archivaria*, 25, 12-28.
- Wurl, Joel. 2005. Ethnicity as provenance: In search of values and principles for documenting the immigrant experience. *Archival Issues*, 29, 65-76.
- Yakel, Elizabeth. 2003. Archival representation. *Archival Science*, 3, 1-25.
- Yeo, Geoffrey. 2012a. The conceptual fonds and the physical collection, *Archivaria*, 73, 43-80.
- Yeo, Geoffrey. 2012b. Bringing things together: Aggregate records in a digital age. *Archivaria*, 74, 43-91.
- Yeo, Geoffrey. 2010. Debates about description, In: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Terry Eastwood and Heatehr Macneil, ed. 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89-14.
- Zhang, Jane. 2012. Original order in digital archives. *Archivaria*, 35, 167-193.

〈부록 1〉 출처주의 논변구조 : 정립기

논변 요소	내용
사실 근거	1. 중앙집중적인 국가기록보존소가 설립되어 여러 기관에서 생산된 많은 보존기록이 한 곳으로 이관되었다. 2. 국가기록보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이러한 기록을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기술하는 것이다.
한정어	등록소를 거쳐 질서정연하게 이관된 중세 문서 및 초기 정부문서(주로 종이)
주장	[적용] 출처별로 기록을 분리하여 품을 구성하고 품 안에서는 원질서에 따라 기록을 물리적으로 배치한다. [해석] 1. 품: '행정기관'이 업무과정에서 생산·축적한 기록물 전체 2. 품존중의 원칙(출처주의): 외적으로는 출처(품)별로 구분하고 내적으로는 원질서를 존중하여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는 원칙 3. 원질서: 행정기관의 조직구조에 조응한 기록조직체계
논거	[기록유기체론] 1. 기록컬렉션의 구조는 조직의 구조, 내부 부서,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 과정을 반영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록컬렉션은 행정조직이라는 유기체를 그대로 닮았으며, 따라서 기록컬렉션 역시 유기체적인 속성을 지닌다. 2. 보존기록의 자연성, 상호관련성, 유일성은 이러한 유기체론을 뒷받침한다. 3. 보존기록을 정리할 때 이러한 유기체적 속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보존기록 컬렉션의 원래의 구성과 순서, 즉 내적, 외적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보강	[실무조건] 1. 행정기관의 등록소에서 체계적으로 조직된 상태의 기록이 이관된다. 2. 보존소로 이관된 록컬렉션은 더 이상 문서가 가감되거나 재구성되지 않으며 대부분 '종결된 상태'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리체계를 변경할 사유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3. 원래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정리방법이며, 주체나 시기 등 다른 기준으로 재정리할 경우 인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
반론	1. 원질서가 연구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질서가 아니다.→ 이용을 고려한 정리체계는 유기체로서 기록집합체의 속성을 훼손한다. 2. 등록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원질서가 부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원질서를 유지해도 행정조직 구조와 기능을 반영하지 못한다.→ 원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직구조에 따라 원질서를 복원한다.

〈부록 2〉 출처주의 논변구조 : 확산기

논변 요소	내용
<b>사실 근거</b>	1. 세계대전이후 정부기록 급증으로 폐기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다. 2. 보다 실용적이고 이용자를 고려한 기록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b>한정어</b>	전체 기록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선별된 공공기록(대부분 종이기록)
<b>주장</b>	[적용] 1. 유럽의 엄격한 풍 대신에 출처와 기록규모를 고려하여 레코드그룹(물리적, 지적 구성물)을 구성한다. 2. 원질서가 출처의 구조와 업무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질서를 재조정한다. [해석] 1. 풍: 한 조직이 업무과정에서 생산·축적한 기록물 전체이지만, 기록의 규모를 감안하여 여러 출처의 기록을 모아 하나로 레코드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2. 원질서: 이관받은 집합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질서로 생산조직의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3. 출처: 기록보존소로 이관되기 전 이루어진 업무활동 과정에서 기록을 생산, 축적, 유지, 사용한 조직이나 개인 4. 출처주의: 출처와 원질서에 따라 보존기록을 물리적으로 배치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원칙
<b>논거</b>	[기록생애주기론] -기록은 유기적 활동의 산물이지만 보존소는 행정조직에 상응하는 유기적 구성물로서 기록 전체를 보유하지 않는다. 생애주기별로 관리하다가 선별을 거쳐 보존가치가 있는 일부 기록만을 보존소로 이관하게 되므로 이렇게 선별된 일부 기록을 위한 정리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기록기치론] 1. 보존소로 이관된 기록은 2차 가치를 갖는 기록이며, 역사가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2. 증거가치를 위하여 기록을 출처별로 모으고 원질서를 유지해야 하지만, 출처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정리체계를 조정해야 이용가치(정보가치와 증거가치)를 높일 수 있다.
<b>보강</b>	[실무조건] 1. 과거와 같이 독립적인 정부조직(풍 구성의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직출처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검색도구(인벤토리) 작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기록의 최상위집합체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이관받은 기록을 출처별로 구분하고 원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기록 재정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b>반론</b>	<p>1. 레코드가 그룹은 기록의 출처를 훼손하는 개념으로서 유기체적 구성물로서 기록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유럽의 아카이브 풍은 미국 현실에 맞지 않으며 실용적이지 않다.</p> <p>2. 아키비스트가 원질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기록의 생산출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 2. 미국에는 유럽식 등록제도가 없어 원래의 질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기록의 가치는 이용에 있으므로 원질서가 이용에 불편하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	---

### 〈부록 3〉 출처주의 논변구조 : 전환기

논변 요소	내용
<b>사실 근거</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조직의 변화가 빈번해져서 행정조직 구조에 기반을 둔 논리적 질서와 시간이 흐르면서 형성되는 기록의 물리적 질서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li> <li>2. 여러 생산주체와 관리이력을 거친, 생산이 계속되는 집합체(open fonds)에 속해있는 기록들을 정리해야 할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li> <li>3. 복수의 출처를 가진 기록이 많아지는데 이를 하나의 출처에 끼워 맞춤으로써 출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li> <li>4.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종이기록에 대한 전자적 통제가 시작되어 이에 맞는 방법론이 필요하다.</li> </ol>
<b>한정어</b>	공공기록,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민간기록
<b>주장</b>	<p>[적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논리적 정리와 물리적 정리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1)기록의 실물 배치를 통해 풍을 구현하지 않으며, 논리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구현 (2) 시리즈 이하 계층은 원질서의 원칙에 따라 물리적으로 정리.</li> <li>2. 기록과 맥락(생산자와 기능)을 분리하고 기술하고 연계함으로써 출처를 존중한다.</li> <li>3. 풍의 내부질서는 조직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 조직한다. 따라서 원질서는 기록이 기능별로 편재되는 질서이어야 한다.</li> </ol> <p>[해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처: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 과정에서 기록을 생산·축적·유지·이용한 개인이나 조직과 기록 사이의 관계</li> <li>2. 출처주의: 기록-기능-생산자간의 관계로서의 출처를 유지·관리하고 원질서의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li> <li>3. 풍: 개인이나 조직이 생산·축적·이용한 기록 전체이며, 물리적 기록집합체가 아니라 가상적으로 표현되는 집합체임. 이 집합체는 기록과 생산자, 기록과 기능의 관계를 요약한 논리적 기술을 통해 표현됨</li> </ol>

<b>논거</b>	<p>[언어학 및 전산]          풍이나 레코드그룹을 논리적 구조물로 보면 복수출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p> <p>[사회적 접근법]          1. 사회적 접근법에 따라 기록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주목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조직보다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2. 기록생산·축적·유지·이용 과정에서 형성된 생산자-기능-기록간의 관계가 기록이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p>
<b>보장</b>	<p>[실무조건]          자동화기술을 통해 출처를 다대다 관계의 복합체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이 마련됨</p>
<b>반론</b>	<p>풍을 물리적 정리에 적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술조차 안 해준다면 출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다. → 필요할 때 시리즈 기술을 모으면 풍을 개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p>

〈부록 4〉 출처주의 논변구조 : 확장·해체기

<b>논변 요소</b>	<b>내용</b>
<b>사실 근거</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데이터형 기록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디지털기록이 양산되기 시작하였다.</li> <li>2. 디지털환경에서 관계로서 출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다.</li> <li>3. 분류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원질서 표현을 위한 과제가 대두되었다.</li> <li>4. 사회적 다양성과 집단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기록관리에 반영하라는 요구가 생겼다.</li> </ol>
<b>한정어</b>	<p>조직기록 중심이지만 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기록을 포함</p>
<b>주장</b>	<p>[적용]          1. 생산자-기능-기록 간의 논리적 관계뿐 아니라 기록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행위자-행위-기록 간의 관계를 포착하여 메타데이터를 확보한다.          2. 생산자가 형성한 파일분류체계가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한다. 분류체계가 없다면 집합적 기술을 하지 않는 대신 정교한 메타데이터로 관계정보를 관리한다.          3.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후조합 방식으로 기록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4. 이차적 출처로서 기록관리자, 사회적 출처로 기능하는 다양한 맥락정보를 기술한다. 필요한 경우 사회적 출처를 중심으로 기록에 대한 집합적 기술을 한다.</p> <p>[해석]          1. 출처: 기록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행위-행위자 간의 논리적 관계          2. 출처주의: 기록-행위-행위자 간의 관계로서의 출처를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원칙</p>

논거	<p>[기록연속체론] -기록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행위자-행위-기록간에 다양한 관계가 축적되며 이러한 관계는 기록의 조직적, 사회적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p> <p>[포스트모더니즘]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록관리자, 보관자, 이용자도 기록에 가한 행위를 통해 기록의 의미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p> <p>[집단기억] 집단기억으로 기록, 기록을 통한 집단기억의 형성에 주목해야 한다.</p>
보강	<p>[실무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여 생애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기록, 행위, 행위자 및 그 관계를 메타데이터로 자동 포착할 수 있음</li> <li>2. 전자생산 및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메타데이터 간의 상호연계가 수월해짐</li> </ol>
반론	<p>다양한 관계와 맥락을 출처 개념으로 계속 포함시키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출처개념을 포기하고 맥락의 구체적 분석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아닌가? → 출처는 단순히 맥락 기술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산, 축적, 이용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구조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처를 존중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p>